

문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9종 음악 교과서 국악 감상 영역의
비교 분석 및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천 선 희

중학교 9종 음악 교과서 국악 감상 영역의
비교 분석 및 연구

문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천 선 희

인 준 서

천선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중학교 1, 2, 3학년 9종 교과서 국악감상영역을 분석하고 국립 국악원이 제시한 국악 통일안과 비교하여 용어나 악보 상의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감상영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악감상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9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감상곡은 1학년이 88곡, 2학년이 53곡, 3학년이 69곡으로 1학년 교과서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둘째,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분류한 결과 전통음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셋째, 전통음악을 통일안에 근거해서 궁정음악, 선비음악, 민속음악, 종교음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속음악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넷째, 궁정음악은 연례악이, 선비음악과 민속음악은 성악곡이, 종교음악은 무속음악과 제례악의 비율이 높다. 다섯째, 통일안을 근거로 교과서와 차이점을 찾아 본 결과 의외로 용어 사용의 차이점이 많이 나타났다. 여섯째, 통일안에 제시되지 않은 감상곡을 악곡별로 조사한 결과 같은 감상곡인데도 조성, 박자, 장단, 가사 등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음악은 다른 음악과 달리 선호도가 높거나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음악을 자세히 듣고 새롭게 느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좀 더 국악이 대중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교과서에 우리음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많이 듣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역할은 그 만큼 중요하다. 또한 우리 음악은 하나의 악곡, 악기 등에 몇 가지의 용어가 같이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음악 감상 교육과 통일안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음악의 이해를 돕고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II. 이론적 배경	6
1. 국악 감상교육의 필요성	6
2. 통일안	9
3. 선행연구	10
III. 본론	15
1. 9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감상곡	15
2. 국악 감상곡 분석	19
1) 전통음악	21
가) 궁정음악	26
나) 선비음악	28
다) 민속음악	31
라) 종교음악	35
2) 창작음악	37

가) 독주곡	42
나) 중주곡	43
다) 협주곡	43
라) 합주곡	43
마) 사물놀이	44
바) 국악과 양악의 조화	44
사) 기타	45
3. 교과서와 통일안과의 비교	45
1) 교과서별(통일안내)	45
가) 교학	48
나) 동진	48
다) 두산	49
라) 성안당	50
마) 세광	51
바) 아침나라	52
사) 지학사	53
아) 천재교육	53
자) 태성	53
2) 악곡별(통일안외)	54
가) 시조	54
나) 영산회상	55
다) 판소리	56

라) 가곡	58
마) 산조	58
바) 단가	60
사) 수제천	60
4. 국악 감상 영역의 제안점	61
IV. 결론 및 제언	6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1> 통일안에 제시된 중요한 용어들	10
<표2> 중학교 1학년 9종 교과서 국악 감상곡	15
<표3> 중학교 2학년 9종 교과서 국악 감상곡	17
<표4> 중학교 3학년 9종 교과서 국악 감상곡	18
<표5> 국악의 분류	20
<표6>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의 분류	21
<표7> 중학교 1학년 전통음악 분류	22
<표8> 중학교 2학년 전통음악 분류	23
<표9> 중학교 3학년 전통음악 분류	25
<표10> 궁정음악	27
<표11> 선비음악	28
<표12> 민속음악	31
<표13> 각 지역별 민요 분류	33
<표14> 종교음악	35
<표15> 중학교 1학년 창작음악 분류	37
<표16> 중학교 2학년 창작음악 분류	39
<표17> 중학교 3학년 창작음악 분류	41
<표18> 독주곡 분류	42
<표19> 중주곡 분류	43
<표20> 합주곡 분류	44

<표21> 국악과 양악의 조화 분류	44
<표22> 교과서의 수록 내용과 통일안과의 차이점	46
<표23> 시조	54
<표24> 영산회상	55
<표25> 판소리	56
<표26> 가곡	58
<표27> 산조	58
<표28> 단가	60
<표29> 수제천	6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요즘 국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교과서에 40%이상이 국악 내용이고 일반 사람들이 대중매체나 인터넷으로 우리 음악을 접해보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서양음악 중심의 클래식이나 대중가요만을 중요시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음악은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각 나라마다 전통음악의 필요성이나 특징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옛것에 대한 이해와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다.

가장 감수성이 좋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학교 음악시간에 교과서를 통해 우리음악을 접하게 하는 것은 국적 있는 자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 감상활동은 음악을 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인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다양한 소리를 듣고, 탐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고 음악의 표현적 요소와 음 현상에 대한 감지력과 민감한 반응력을 기른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 국악 교육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 문화의 음악적 특질과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 중 음악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감상교육의 중요성과 음악의 생활화, 감상 교육을 통한

기초적인 음악 활동, 생활과 음악의 관련성과 전통음악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적인 음악 활동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¹⁾

고든은 “그저 음악을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음악을 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경지로 유도해 낼 수 없지만, 음악을 이해하면서 들으면 음악적 즐거움을 조장할 수 있다.”²⁾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음악적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음악을 이해하여야 한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갖게 한다. 또한 음악 감상 능력은 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므로 음악을 듣는 힘을 개발하고, 훈련에 의하여 감상 능력을 늘려주는 것이 음악성을 기르는데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음악성이란 음악의 아름다움을 향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³⁾ 라는 머셀의 주장처럼 감상을 통해서 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음악적 표현도 가능해야 한다. 인간은 노래하고 연주하며 창작하고 듣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력을 지녔는데 이 능력은 교육을 통해 개발하여 정신을 순화시킴으로서, 조화롭고 운치 있는 생활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⁴⁾

어린이는 흔히 집에서 많은 음악을 듣지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배경 잡음으로 여긴다. 코다이 음악 지도법에서 음악 듣기는 어린이가 주의 깊게 그리고 즐겁게 노래와 음악을 듣는데 익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다이는 학생들의 발달 원리를 고려하여 각 요소를 단순한 개념에서부터 복잡한 개념으로 전개되는 단계별 구성하여 귀의 훈련으로 음높이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계발시키며 손기호 등의 시각적 보조 기구의 활용으로 학습의 효율성

1) 교육부, 『중,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해설(IV) : 체육, 음악, 미술』 (대한교과서, 1999), p.98

2) Gordon Edwin, The Psychology of Music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1, p.115

3) Mursell, J. L. & Glenn, M,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음악교육심리학』 (세광출판사, 1988), p.13

4) 정희란, “초등학교 음악 감상 영역 지도 내용에 관한 연구”, 청주교대석사학위논문, 2002

을 증대시킨다.⁵⁾

교육과정에서 보면 감상활동은 악곡의 구성 요소, 악곡의 형식, 신체 표현하기, 목소리와 악기의 조화, 연주 형태, 성악곡과 기악곡 듣기,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기”는 가사를 포함하여 악곡의 구성 요소와 이들의 결합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악곡의 독특한 성격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는 것으로서 전 학년에 걸쳐 다루어지는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며 듣기”는 어느 특정 시대나 문화권, 국가의 악곡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하기”는 악곡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분위기나 리듬, 가락의 형태, 음향의 특성 등에 따라 이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개성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며 듣기”는 악기와 목소리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음색과 음향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게 지도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전자 악기와 목소리와의 조화를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를 구별하여 듣기(협주)”는 감상곡의 다양한 여러 가지 연주 형태 중에서 1학년의 경우, 협주[가야금 협주(국악곡), 사물과 관현악 협주(국악과 양악의 협주 형태)] 등의 연주 형태를 구별하도록 제시한 것이고, 연주 형태의 구별에서 더 나아가 2학년은 연주 형태(무반주 성악)와 악곡의 특징과의 관

5) 박선희, “초등학교 음악 교과 학습지도를 위한 코다이 교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청주교대석사 학위논문, 2003

계, 3학년은 연주 형태(관현악과 성악)와 악곡의 특징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하여 지도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학년에 따른 성악곡과 기악곡 듣기”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1학년에서는 우리나라 가곡, 시조 등의 성악곡과 앞서 제시된 여러 형태의 협주곡, 연례악 등의 기악곡을, 2학년은 전통 가곡 등의 성악곡, 3학년에는 단가, 외국가곡 등의 성악곡과 산조, 다악장 형식 등의 기악곡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양식과 장르의 음악은 특정한 시대나 문화권의 음악을 초월하여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각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풍부한 사고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 의식을 통한 실제 생활과 연계를 지음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알게 하였다. 2, 3학년에는 음악의 역할은 물론, 그 가치도 이해하도록 하였는데 2학년은 학교 내외의 여러 의식을 통하여, 3학년은 음악과 인간에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의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세계와 연계성을 가지고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전 학년에서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는 음악을 분석, 종합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개개인이 느낀 바를 간단히 평하는 수준에서 활동하도록 하였고, “바른 감상 태도를 갖기”는 교실, 음악회장, 학교 밖에서의 감상 태도를 가지도록 전 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⁶⁾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9종 교과서에 나타난 국악 감상곡들을 조사 및 분류하고 또한 국악 통일안과 비교하여 용어나 악보상의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감상 영역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가지는데 목적이 있

6) 교육부, 『중,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해설(IV) : 체육, 음악, 미술』(대한교과서, 1999), p.93

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현행 중학교 9종 교과서의 국악 감상 영역에 관한 내용을 조사 및 분류하여 분석한다.

둘째, 국립 국악원의 통일안과 비교하여 용어나 악곡상의 차이점이 없는지 조사한다.

셋째,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점,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악 감상교육의 필요성

국악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음악과 감정이 가장 한국적인 표현방법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 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얼이 담긴 국악을 감상함으로써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동질성과 우리 음악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세계음악문화 속에서의 국악의 위치와 세계 음악 속에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면 국악 감상 교육이 바라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악감상은 국악에 대한 올바른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음악 문화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좋은 음악을 선택하게 되듯이 국악에서도 좋은 음악들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좋은 국악작품을 찾게 된다. 따라서 음악교육에서 우리 민족정서의 진수라 할 수 있는 국악곡의 감상과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국악감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그들이 커서도 우리음악을 찾게 될 것이고 국악은 진정한 한국의 음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⁷⁾

국악을 학습하는 방법에는 가창활동, 기악연주활동, 창작활동을 통하여도 가능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감상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국악 감상활동을 통하여 우리 음악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학습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악 감상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7) 이상규, “국악감상교육체계화 연구”,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기악·창작·감상』(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2002), p.8

1) 시김새

시김새란 음에서 음으로 진행할 때 나타나는 표현기법이며 경우에 맞도록 흔들어주거나 밀어 올리거나 꺾어 내리는 등의 진행방법으로 기악의 경우 하나의 줄이나 지공에서 말한 소리의 여음 변화를 일컫는다. 농현은 우리 음악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이기에 이를 파악함은 우리 음악 이해의 지름길의 하나가 된다. 특히 귀로 이를 들으며 즐길 수 있다면 우리 음악의 반 이상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장단

국악에 있어 장단은 선율과 함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우리 음악은 장단의 조화 속에서 그 멋을 한층 더 뽐내고 있다. 장단은 국악의 거의 모든 장르에서 사용된다. 장단이란 보통 일정한 길이의 리듬꼴 이라고 정의된다. 이 일정한 리듬꼴은 음악에 알맞게 반복된다. 그리고 장단은 음악적 성격과 상황에 따라 여러 변화를 하게 된다. 때로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기도 하고 혹은 느려지기도 하며 잔가락이 덜리기도 하고 더해 가기도 하는 이 변화는 무궁무진한 것이다.

3) 선법과 조

정악에는 평조와 계면조의 선법이 있으며 민요에는 지역에 따른 선법이 있다. 평조와 계면조는 조선 초만 하여도 5음 음계였으나 조선말에 와서 평조는 그대로 5음 음계를 유지하지만 해당 악곡은 그리 많지 않다. 계면조는

3-4음계로 변질되어 오늘날 남아 있는 대부분의 악곡이 이에 속한다. 선법과 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음악 고유의 특징과 느낌을 알 수 있다.

4) 형식

국악곡의 악곡 구성방식으로는 한배에 따른 형식, 즉흥성에 따른 형식, 모음곡 형식, 연음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시조형식, 가곡형식, 환두/환입형식 등이 있다. 이 형식들은 다른 나라의 음악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전통음악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을 이해하면 우리 음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악기 음색

음색은 국악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악지도에서 각 악기의 음색을 구별 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악기의 음색을 구별함으로써 그 악기의 특징도 이해할 수 있다.

6) 독보력

독보력이 있는 감상은 선율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악곡을 듣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는 감상이 된다. 음악을 귀로 들으며 눈으로 악보를 읽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은 악곡과 훨씬 친숙해 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악보를 읽어가며 음악을 듣는 일은 악보 없이 듣는 경우보다 악곡에 대한 이해가 쉬우며 훨씬 친근감이 생기고 아울러 재미있는 감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⁸⁾

2. 통일안⁹⁾

본고에서 각종 용어상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통일안은 다음과 같다.

초, 중등학교 국악교육내용 통일안은 국악교육협의회와 국립국악원이 1993년에 1차 통일안을 만들고 이어 1996년도에 2차 통일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곳에 수록된 내용은 1차를 보완한 2차 국악교육내용 통일안이다.

통일안은 1. 용어 통일안, 2. 장단 통일안, 3. 국악사 시대구분 및 분류, 4. 기보법 통일안, 5. 민요표준 악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용어 통일안은 악기용어, 악곡용어, 일반용어 세 가지를 통일하였고 장단 통일안은 세마치, 굿거리,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을 통일하였는데 장단들의 속도는 민요의 속도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악곡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기보법 통일안은 정간보 기보법과 오선보 기보법을 통일하였고 민요는 표준악보를 제시하였다.

민요는 통일안에 보면 민요표준악보 제정원칙으로 초, 중등학교 음악교과서(41종)에 수록된 민요 65곡을 수록빈도 및 중요도 등의 기준에 따라 22곡을 선정하고 이 민요들의 가사, 선율, 음역, 장단, 박자, 분류의 5가지 항목을 검토하여 제정하였다.¹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는 원가사에 가깝게 한다. 2. 선율은 기존의 골격선율에 살을 붙

8) 이상규, 전제서, p.15-16

9) 『초, 중등학교 국악내용 통일안(Ⅱ)』 (국립국악원, 1996)

10) 통일안에 제시된 22곡의 민요중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5곡의 악보를 논문 끝 부록에 실었다.

인다. 3. 음역은 통성으로 부르기 알맞게 한다. 4. 장단과 박자표기는 장단 통일안에 따른다. 5. 민요의 분류는 지역별로 한다.

중요한 용어를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1> 통일안에 제시된 중요한 용어들¹¹⁾

용어	현행	통일안
악기용어	장구, 장고	장구
악곡용어	관악영산회상, 삼현영산회상, 표정만방지곡	관악영산회상
	닐리리아, 널리리아, 널리리아, 털리리아	널리리아
	도라지, 도라지타령	도라지타령
	삼현도드리, 삼현환입, 상현환입, 상현도드리	삼현도드리
	상령산, 상영산	상영산
	세령산, 세영산	세영산
	영산회상, 중광지곡, 거문고회상, 현악영산회상	현악영산회상
	중령산, 중영산	중영산
	초수대엽, 초삭대엽	초삭대엽
	홍부가, 홍보가	홍보가

3. 선행연구

김후분(1994)은 “국악 교육의 실태 연구에 따른 국악 감상 학습의 제언: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에서 국악 감상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의 음악적 취향을 고려해야 하며 수업시 감상 기재로 음반, 테이프와 같은 청각기재 뿐만 아니라 비디오 테잎과 같은 시청각 기재를 이용한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11) 전체적인 악곡용어에 대해서는 논문 끝 부록에 실었다.

국악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교사 자신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국악의 미를 체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교육의 실현을 시사한다고 했다. 국악 감상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의 음악적 취향을 고려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학생들이 1~2명이 아니고 몇십명이 되는 학생들을 일일이 음악적 취향을 살펴서 수업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또 특정한 분야의 음악 감상에 치우칠 수 있다.

권주심(2003)은 “효율적인 창작국악 감상지도를 위한 수업 모형의 구성에 관한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에서 학생들의 창작국악감상 수업에 대한 교육적 효과의 상승을 위하여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업모형의 구성을 연구하였다. 효과적인 수업모형은 우선 효과적인 창작국악감상 수업 지도를 위해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창작국악의 수록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학습 목표를 세 가지 유형 즉, 악곡음미, 악곡분석, 악곡비교로 나누어서 그 유형들에 근거하여 곡을 분류하였다. 단계별 창작국악감상 지도 모형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에 대한 향후 연구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김민정(2003)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 9종 비교 분석 연구: 감상영역을 중심으로”에서 시대별 감상곡의 분포는 각 교과서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곡 선정과 난이도 및 시대별 분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장르별로 보면 한국음악은 전통음악 중 성악곡의 수록이 높고 연주형태별로 보면 전통음악 중 성악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음악활동은 한 영역에 치우침 없이 음악의 모든 영역을 균형있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통합적 학습과 심미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통음악, 창작국악, 현대음악을 골고루 수록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지

고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대중음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명숙(2003)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악 감상 교육 연구: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에서 중학교 3학년 8종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감상곡들을 분석하였는데 영역별 분류는 8종 교과서를 종합한 결과 비중이 높은 영역은 이해영역이고 낮은 영역은 창작영역이라고 했다. 제언은 음악의 모든 영역을 균등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음악성을 발달시키고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이 중요하며 한국음악을 더욱 체계화시켜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곁들이고 제재곡도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과서 선택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가 비슷한 양식으로 설명하였기에 특별하게 교과서의 선택이 중요하기보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한국음악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접해야 하고, 감상수업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과 소리를 학생들에게 제고해야 하고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좋아하고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과제를 제시하여 수업에 충실하게 이해에 도움을 주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수업시간에 참여도를 높여주는 교수 학습 지도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한다고 음악수업을 좋아하고 친근감 있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윤영(2004)은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감상에 관한 연구” 에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 2, 3학년 음악과 교과서를 분석 하였는데 중학교 음악과 교과서에서 감상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 1, 2, 3학년 평균 22%로 비중이 높은 편이고 국악 감상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5.3%이라고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직 중학교 음악과 교사들 대부분이 양악을 전공한 교사였으며 감상수업은 연간 1~2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감상영역은 음악과 교과서에서의 비중은 높았으나 교육현장에서는 가창

과 이해영역에 편중되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국악감상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음악수업의 시수 부족과 음악과 교사와 학생들이 국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양해숙(2005)은 “현행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감상곡 분석 연구”에서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을 활동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가창영역, 기악영역, 감상영역, 창작영역의 순으로 나타나며 가창영역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곡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9종 교과서의 수록된 국악 감상곡은 총 47종류이나 이 중 일부의 악곡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장르면에서 살펴보면 민요가 전체의 3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주형태에 있어서는 전통성악, 전통기악, 창작기악 순으로 제시되었고 기보법에 있어서는 오선보로 기보한 경우가 많고 악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제언으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소중히 여길 줄 알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임모니카(2006)는 “중학교 국악 감상곡 분석과 지도방안: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에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악 감상곡을 분석하고 중복 선정된 곡을 중심으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 9종 교과서의 국악 감상 학습 영역을 분석한 결과 국악 감상곡은 총 66곡이며 비중이 높은 교과서는 17%이고 낮은 교과서는 6%이라고 하였다. 국악 감상곡을 영역별로 분류할 때 민속악의 비중이 27%로 가장 높고 기악곡의 비중이 성악곡의 비중보다 높고 창작곡의 비중은 20%이며 영역별로 분류할 때 크로스오버가 38%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제언으로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나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악감상에 앞서 교사부터 국악의 원리와 특징

을 사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해야 하고 기존의 편견과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감상학습방법의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창작국악분야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감상 지도 방안 제시 및 다양한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Ⅲ. 본 론

1. 9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감상곡

각 학년별로 음악 교과서의 출판사별 감상영역에 명시되어 있는 감상곡을 조사하였다. 단, 민요는 각 교과서에 악보로 제시된 곡만을 곡수로 나타낸 것이고 춤곡은 교과서별로 각각의 곡수를 세지 않고 모두 한곡으로 보았다. 영산회상은 8~9곡으로 구성된 영산회상에 속하는 각각의 단위별 곡이 제시된 것도 있고 전체적인 하나의 곡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한곡으로 보았다. 종묘제례악 역시 영산회상의 경우처럼 모두 한 곡으로 보았다. 판소리는 전통의 5마당에 각 마당당 여러 대목을 제시한 것도 있었으나 모두 한 바탕을 한곡으로 보았다. 9종 교과서 국악 감상곡을 정리한 것은 표 2, 3, 4와 같다.

<표2> 중학교 1학년 9종 교과서 국악 감상곡

출판사	감상곡	곡수
교학	•시조 ‘동창이’ •수제천 •현악영산회상中 ‘상영산’	3
동진	•민요(5) •청성자진한일 / 병주 •영산회상中 ‘상영산’	10
두산	•대취타 / 취타 •민요(4) •시조 ‘동창이’	10
성안당	•영산회상 •시조 ‘동창이’	8
세광	•춤곡 •민요(5)	14

	•천년만세 •연례악<여민락/낙양춘/보허자/수제천>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 •취타 / 대취타	
아침나라	•현악 영산회상中 ‘타령’ •강강술래와 놀이노래(6) •여리지방 아리랑(2) •신모듬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 •신뱃놀이 •뱃노래 •판소리 ‘홍보가’ •민요(5) •시조 / 가곡	21
지학사	•연례악 ‘해령’ •취타 / 평시조 ‘동창이’/ 홍보가 中 박타는 대목’ / 종 묘제례악 / 신모듬	6
천재교육	•민요(5)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평시조 ‘동창이’ •가야금 산조 •연례악<수제천/여민락/보허자/낙양춘>	12
태성	•종묘제례악 •판소리 ‘홍보가’ •수제천 •시조 ‘태산이’	4
계		88

* ()속의 숫자는 곡수임

** / 표시는 교과서에 비슷한 장르의 악곡을 비교 설명하여 감상곡으로 제시한 것으로 곡수는 각각 별개의 곡으로 간주하였다.

중학교 1학년 9종 교과서의 국악 감상곡은 총 88곡이며, 그 중 아침나라에서 21곡이 제시되어 가장 많은 곡이 소개되었다. 그 다음은 세광에서 14곡을 제시하였다. 반면 교학에서는 3곡으로 가장 적은 곡이 소개되었다. 악곡별로는 민요와 시조가 많이 제시되었는데 민요는 각각의 교과서에 우리나라 지역별 민요 중 대표적인 것 한곡씩 실어놓았다. 아침나라에서는 각 지방별 민요와 놀이노래를 함께 실어 민요만 13곡이 제시되었다. 시조는 세광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실렸는데 특히 평시조 ‘동창이’ 곡이 실려있고 태성에서만 평시조 ‘태산이’ 곡이 실렸다. 그러나 시조는 노랫말인 시조가 달라도 음악은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시조시로 노래를 감상하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3〉중학교 2학년 9종 교과서 국악 감상곡

출판사	감상곡	곡수
교학	•종묘제례악 / 여민락 / 보허자 •가곡 ‘우조 초삭대엽’ / 시조 ‘동창이’/ 가사 ‘백구사’ •천년만세	7
동진	•새몽금포타령 •가야금 병창 ‘새타령’ •가곡 ‘태평가’ •사설시조 •사물놀이 •시나위 •범패 •풍물놀이	8
두산	•가곡 ‘우조 초수대엽’ •사물놀이 •심청가中 ‘심청의 고백’/ 단가 ‘만고강산’ •대금산조 •현악영산회상	6
성안당	•송춘곡 •가곡 ‘우조 초수대엽’ •영남가락 ‘사물놀이’	3
세광	•춤곡 •가곡 ‘우조 초수대엽’ •창작국악 ‘초원’	3
아침나라	•사물놀이와 풍물놀이 •가곡 ‘언락’ •수심가-엮음수심가 •청성자진한잎 / 수제천 •북청사자놀이	8
지학사	•가곡 ‘우락’ / 생소병주 ‘수룡음’ •동해안별신굿 •엮음수심가 •풍물놀이 •대취타	6
천재교육	•가사 •제례악 ‘종묘/ 문묘’ •가곡 ‘언락’ •관소리 ‘춘향가’ •창작국악곡 가야금3중주(3)	8
태성	•취타 •현악영산회상中 ‘타령’ •가곡 ‘편락’ •가시리	4
계		53

중학교 2학년 9종 교과서의 국악 감상곡은 총 53곡으로 동진과 아침나라, 천재교육에 각각 8곡씩 제시되어 가장 많은 곡이 소개되었다. 그 다음은 교학에서 7곡을 제시하였다. 반면 성안당과 세광은 각각 3곡씩 제시하여 가장 적은 곡이 소개되었다. 가곡이 모든 교과서에 고루 제시되어 ‘초삭대엽’, ‘태평가’, ‘언락’, ‘우락’, ‘편락’의 다양한 곡들이 실렸다. 1학년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사물놀이, 풍물놀이 등이 있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곡이 제시되기보다는 다양한 곡이 골고루 소개되어 있다.

<표4> 중학교 3학년 9종 교과서 국악 감상곡

출판사	감상곡	곡수
교학	•전통음악 <청성자진한잎 / 수룡음 / 범패 / 대취타> •민속음악 <산조 / 시나위 / 판소리 <단가 ‘진국명산’, 심청가 ‘범피중류’, 흥부가 ‘제비몰이’>/ 잡가>	10
동진	•단가 ‘만고강산’ •가야금산조 •영산회상中 ‘타령’	5
두산	•진국명산 / 수궁가 •가야금산조/ 천년만세	6
성안당	•단가 ‘진국명산’ / 춘향가中 ‘쑥대머리’ / 수제천 •가야금 산조 /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전통기악곡<종묘제례악 / 영산회상 / 취타 / 대취타 / 시나위>	10
세광	•춤곡 •춘향가 ‘사랑가’ •극음악 <흥부가中 ‘가난타령’ / 단가 ‘만고강산’>	7
아침나라	•종묘제례악 •춤곡 •가야금병창 ‘내 고향의 봄’	7
지학사	•산조와 시나위 •창작 국악곡 ‘고구려의 혼’ / ‘일출’ •판소리 ‘춘향가’ / 단가 ‘고고천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음악<범패 / 굿음악> •심청가中 ‘황성가는대목’ •신밧놀이 •영산회상中 ‘세영산’ •대금산조 •세대의 가야금을 위한 ‘캐논’ •전자악기와 목소리의 조화 ‘금수강산’ •수제천 	
천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가 ‘진국명산’ • 합주곡 제5번 ‘타령에 의한 변주곡’ •거문고산조 •관악영산회상中 ‘상영산’ 	4
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민락 • 석사자 / 심상가곡 ‘형산’ •신관동별곡 / 산행 • 거문고 산조 •관악영산회상中 ‘상영산’ • 토끼이야기 / 어린왕자 	9
계		69

중학교 3학년 9종 교과서의 국악 감상곡은 총 69곡으로 지학사에 12곡이 제시되어 가장 많은 곡이 소개되었다. 그 다음으로 교학과 성안당에 각각 10곡씩 제시되어 있다. 반면 천재교육에서는 4곡만 제시되어 가장 적은 곡이 소개되었다. 산조는 모든 교과서에 고루 제시되어 있는데 지학사는 ‘대금산조’, 천재교육과 태성은 ‘거문고 산조’,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가야금 산조’가 각각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 판소리와 단가가 많이 실렸고 창작음악이 다른 학년에 비해 많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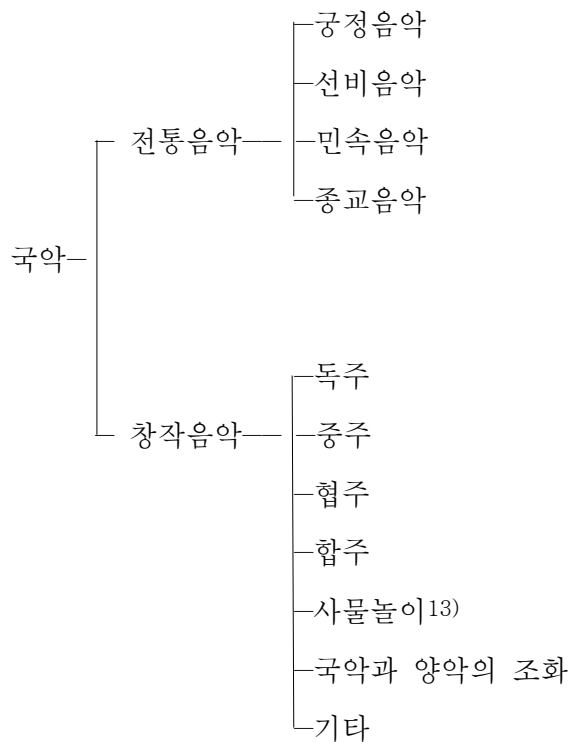
2. 국악 감상곡 분석

국악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장르의 국악이 전승되어온 특성상 국악학계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통일안에 제시된 분류를 편의상 따르고자 한다. 단 창작음악은 통일안에 제시되어 있는 분류의 예가 없어서 필자는 서양음악상의 연주형태에 따른 분류에 준하고자 한다.

통일안에 의하면 국악의 분류는 크게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으로 구분한다.

전통음악은 음악의 성격과 역사성에 근거하여 궁정음악, 선비음악, 민속음악, 종교음악으로 구분하였다. 궁정음악은 아악, 선비음악은 정악, 민속음악은 향토음악, 종교음악은 불교음악, 무속음악 등의 하위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¹²⁾ 창작음악은 음악 연주형태에 따라 독주, 중주, 협주, 합주, 사물놀이, 국악과 양악의 조화, 기타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국악의 분류



12) 『초, 중등학교 국악교육내용 통일안(II)』 (국립국악원, 1996), p.35

13)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의 가락을 재구성하여 만든 곡으로 본고에서 필자는 창작국악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에 나온 국악 감상곡들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6>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의 분류

구분	중1	중2	중3	계
전통음악	80	42	52	174(82.9%)
창작음악	8	11	17	36(17.1%)
계	88	53	69	210(100%)

중학교 1, 2, 3학년 국악감상영역의 곡은 총 210곡으로 전통음악이 174곡(82.9%), 창작음악이 36곡(17.1%)으로 큰 차이를 가진다. 각 학년별로 세분화하면 1학년은 총 88곡으로 전통음악이 80곡, 창작음악은 8곡 제시되었다. 2학년은 총 53곡으로 전통음악이 42곡, 창작음악이 11곡 제시되었다. 3학년은 총 69곡으로 전통음악이 52곡, 창작음악이 17곡 제시되었다. 이처럼 창작음악이 전통음악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변화된 창작음악이 아닌 원형의 전통음악을 먼저 교육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일 것이다.

1) 전통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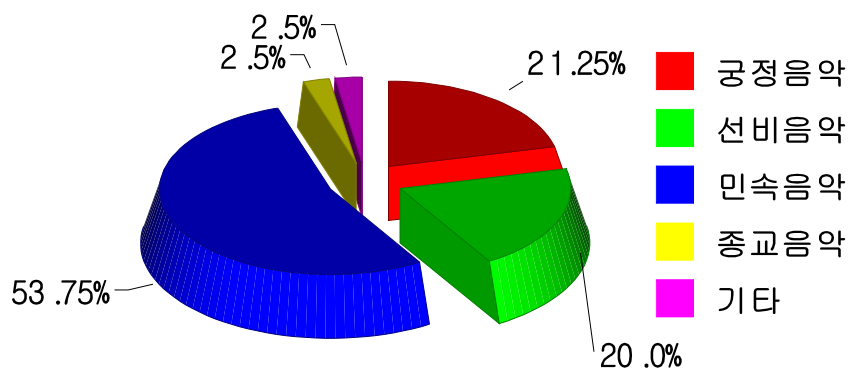
전통음악이란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하여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음악이다. 통일안에 의해 전통음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한 다음 다시 궁정음악을 연례악과 군례악으로, 선비음악과 민속음악을 각각 성악과 기악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제례악은 종교음악에 넣었다. 다음 표의 숫자는 곡수라기보다는 횟수라고 표현해야 옳겠다. 일례로 연례악과 수제천의 경우 어느 교과서

에서 1회 언급되고 다른 교과서에서도 1회 언급되었을 때 필자는 이를 2회로 세었기 때문이다.

<표7> 중학교 1학년 전통음악 분류

분류	종류	계(회)	계(백분율)
궁정음악	연례악	12	17(21.25%)
	군례악	5	
선비음악	성악	9	16(20.0%)
	기악	7	
민속음악	성악	42	43(53.75%)
	기악	1	
종교음악	제례악	2	2(2.5%)
기타	춤곡	2	2(2.5%)
계		80	80(100%)

중학교 1학년 전통음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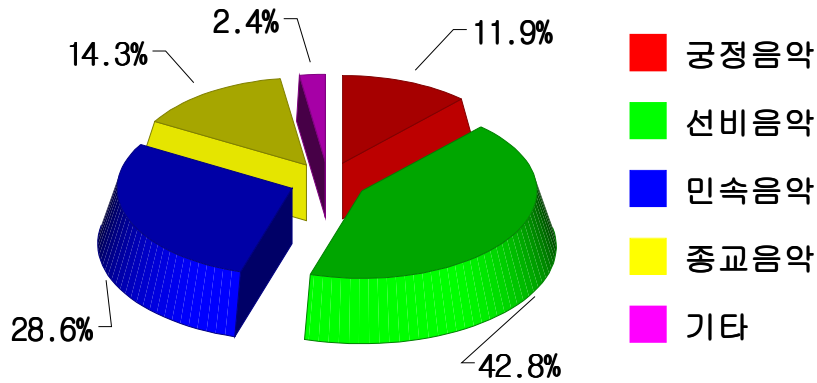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전통음악은 총 80회로 그 중 민속음악이 43회(5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민속음악은 성악곡이 42회이 제시되어 높은 분포를 보인다. 궁정음악은 총 17회(21.25%)로 연례악이 12회, 군례악이 5회로 연례악이 군례악보다 많이 제시되었다. 선비음악은 총 16회로 성악곡 9회, 기악곡 7회로 성악곡이 많이 제시되었고, 민속음악은 총 43회로 성악곡이 42회, 기악이 1회만 제시되어 성악곡이 월등히 많았다. 종교음악은 총 2회로 제례악만 제시되었다. 기타로 분류한 것은 모두 춤곡인데 춤곡은 하나의 독립된 음악이라기보다 춤의 반주음악으로서의 종속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별개로 분류하였다.

<표8> 중학교 2학년 전통음악 분류

종류	분류	계	백분율
궁정음악	연례악	3	5(11.9%)
	군례악	2	
선비음악	성악	13	18(42.8%)
	기악	5	
민속음악	성악	7	12(28.6%)
	기악	5	
종교음악	제례악	3	6(14.3%)
	무속음악	2	
	불교음악	1	
기타	춤곡	1	1(2.4%)
계		42	42(100%)

중학교 2학년 전통음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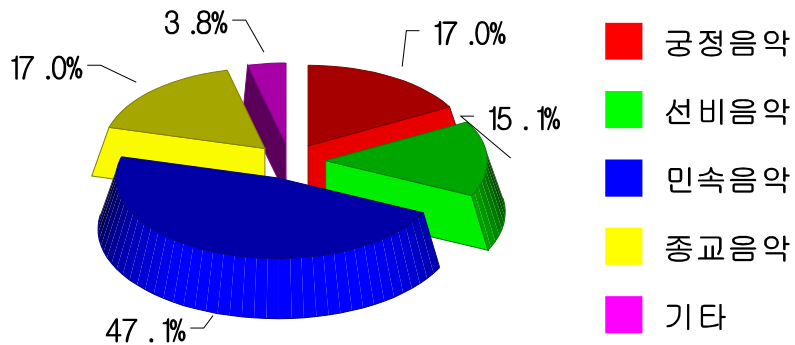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전통음악은 총 42회로 그 중 선비음악이 18회(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민속음악이 12회(28.6%)를 차지하는데 반면 궁정음악은 5회(11.9%)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각 종류별로 더 세분하면 궁정음악은 연례악이 3회, 군례악이 2회 제시되었다. 선비음악은 성악곡이 13회, 기악곡이 5회로 제시되어 있다. 민속음악은 성악곡이 7회, 기악곡이 5회로 제시되었다. 종교음악은 총 6회(14.3%)로 제례악이 3회, 무속음악이 2회, 불교음악이 1회로 제시되어 있다. 선비와 민속음악에서 성악곡이 기악곡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성악곡이 교육 현장에서 특별히 악기 구입 없이도 교육이 가능하고 또한 음악사적으로 기악곡은 성악곡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악음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성악 교육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다.

<표9> 중학교 3학년 전통음악 분류

종류	분류	계	백분율
궁정음악	연례악	6	9(17.0%)
	군례악	3	
선비음악	기악	8	8(15.1%)
민속음악	성악	16	25(47.1%)
	기악	9	
종교음악	제례악	2	9(17.0%)
	무속음악	5	
	불교음악	2	
기타	춤곡	2	2(3.8%)
계		53	53(100%)

중학교 3학년 전통음악 분류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전통음악은 총 53회로 그 중 민속음악이 25회(4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선비음악은 8회(15.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궁정음악은 총 9회(17.0%)로 연례악이 6회, 군례악이 3회로 연례악이 많이 제시되었다. 선비음악은 기악곡만이 제시되었다. 민속음악은 성악곡이 16회, 기악곡이 9회로 성악곡이 많이 제시되었다. 종교음악은 총 9회(17.0%)로 무속음악이 5회, 불교음악과 제례악이 각각 2회씩 제시되었다. 다음은 궁정음악(연례악과 군례악), 선비음악(성악과 기악), 민속음악(성악과 기악), 종교음악(불교음악, 무속음악, 제례악) 별로 포함되는 구체적인 악곡을 조사하여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 궁정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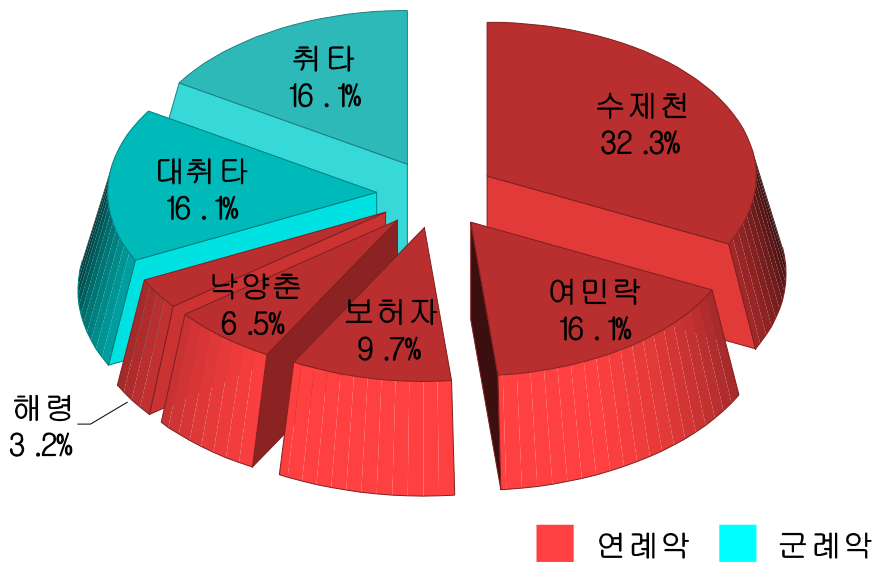
원래 궁정음악이란 조선 왕조 이전 고려시대 음악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음악이 없으므로 궁정음악이란 조선왕조 500여년동안 궁정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변화되어온 음악을 총칭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곡명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먼저 회례나 연례에 쓰이던 음악으로 향악계통의 여민락, 수제천 등이 있고 당악 계통의 보허자, 낙양춘 등과 같은 음악이 있다. 또한 당악계 여민락으로 해령이 있다. 임금의 거동이나 행차에 쓰이던 군례악으로 대취타와 취타가 있다.¹⁴⁾ 궁정음악을 연례악과 군례악으로 분류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각각의 출현횟수를 조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4) 김성경, 『한국음악입문』 (은하출판사, 2004), p.159-167

<표10> 긍정음악

구분	종류	중1	중2	중3	계	계(백분율)
연례악	수제천	4	1	5	10	21(67.8%)
	여민락	3	1	1	5	
	보허자	2	1		3	
	낙양춘	2			2	
	해령	1			1	
군례악	대취타	2	1	2	5	10(32.2%)
	취타	3	1	1	5	
계		17	5	9	31	31(100%)

연례악과 군례악



긍정음악은 연례악이 21회(67.8%), 군례악이 10회(32.2%)로 연례악이 많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긍정음악은 저학년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가장

많이 보였다. 궁정음악의 필수 악곡이라 할 수 있는 수제천은 1학년은 물론 3학년 교과서에서도 많이 제시되었다.

나) 선비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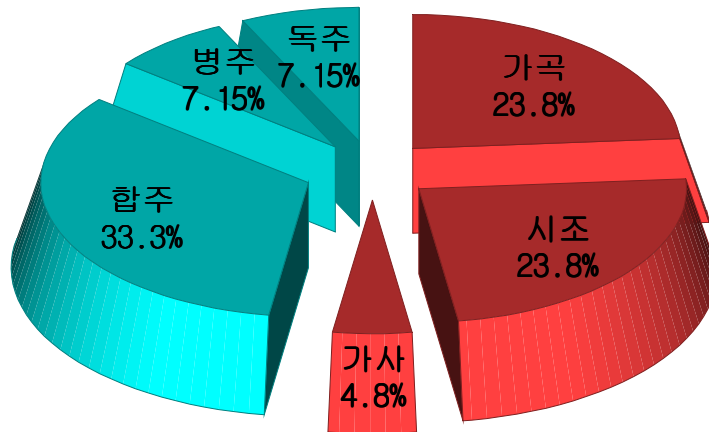
선비음악이란 궁중 밖, 민간에서 양반계층, 소위 지식인들에게 유행하던 풍류음악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풍류음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음악에 영산회상과 같은 줄풍류와 가곡과 같은 성악곡이 주류를 이룬다.¹⁵⁾ 성악곡에는 가곡, 가사, 시조가 속하고 기악곡은 연주 형태에 따라 합주, 병주, 독주로 분류하여 각각 해당 곡의 횟수를 다음의 표와 같이 조사하였다.

<표11> 선비음악

구분	종류	중1	중2	중3	계	(백분율)
성악	가곡	1	9		10	22(52.4%)
	시조	8	2		10	
	가사		2		2	
기악	합주	5	3	6	14	20(47.6%)
	병주	1	1	1	3	
	독주	1	1	1	3	
계		16	18	8	42	42(100%)

15) 윤명원 외 4명, 『한국음악론』 (음악세계, 2003), p.19

성악과 기악



■ 성악 ■ 기악

선비음악은 총 42회로 성악곡이 22회(52.4%), 기악곡이 20회(47.6%)로 성악곡과 기악곡이 거의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3학년은 성악곡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1, 2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결과인 것이지, 3학년에선 성악곡보다 기악곡이 더 중요시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왕이면 1, 2, 3학년에서 성악을 고루 배울 수 있게 안배함이 좋을 것 같다. 가사는 가곡과 시조와 함께 선비음악의 중요한 악곡인데도 상대적으로 출현 비중이 낮은 것은 추후 개선의 과제로 남는다.

(1) 성악곡

가곡은 총 10회 제시되었는데 1학년에서 ‘우조 초삭대엽’이, 2학년은 모든 교과서에 ‘우조 초삭대엽’, ‘태평가’, ‘언락’, ‘우락’, ‘편락’ 등이 제시되었다. 그 중 ‘초삭대엽’이 5회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3학년에서는 가곡이 제시되지 않았다.

시조는 가곡과 마찬가지로 총 10회 제시되었는데 1학년에서 8회, 2학년에서 2회 제시되었다. 1학년은 태성에서만 평시조 ‘태산이’를,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동창이’를 제시하였고, 2학년은 평시조 ‘동창이’와 사설시조를 제시하였다. 3학년에서는 시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가사는 총 2회 밖에 제시되지 않았는데 2학년 교학사에 ‘백구사’와 천재교육에 ‘죽지사’가 제시되었을 뿐이다.

(2) 기악곡

합주곡은 ‘현악영산회상(중광지곡)’ 이하 영산회상과 ‘천년만세’가 제시되었다. 먼저 영산회상은 총 11회로 1학년에서 4회, 2학년 교과서에 2회, 3학년 교과서에 5회로 9개의 모음곡 중에서도 ‘상영산’, ‘세영산’, ‘타령’이 제시되었다. 특히 영산회상은 선비음악 중 33.3%의 높은 비율을 가진다. ‘천년만세’는 총 3회로 각 학년마다 1회씩 제시되어 ‘영산회상’이 합주곡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영산회상 곡이 선비가 즐기던 기악곡으로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이었기 때문으로 현재도 국악 공연장에서 다른 기악곡보다 자주 연주되는 악곡인 것이다.

병주는 생황과 단소로 연주하는 생소병주 ‘수룡음’이 각 학년 교과서에 1

회씩 제시되었다.

독주곡은 대금이나 단소 독주곡으로 쓰이는 ‘청성자진한잎’이 각 학년에 1회씩 제시되었다.

다) 민속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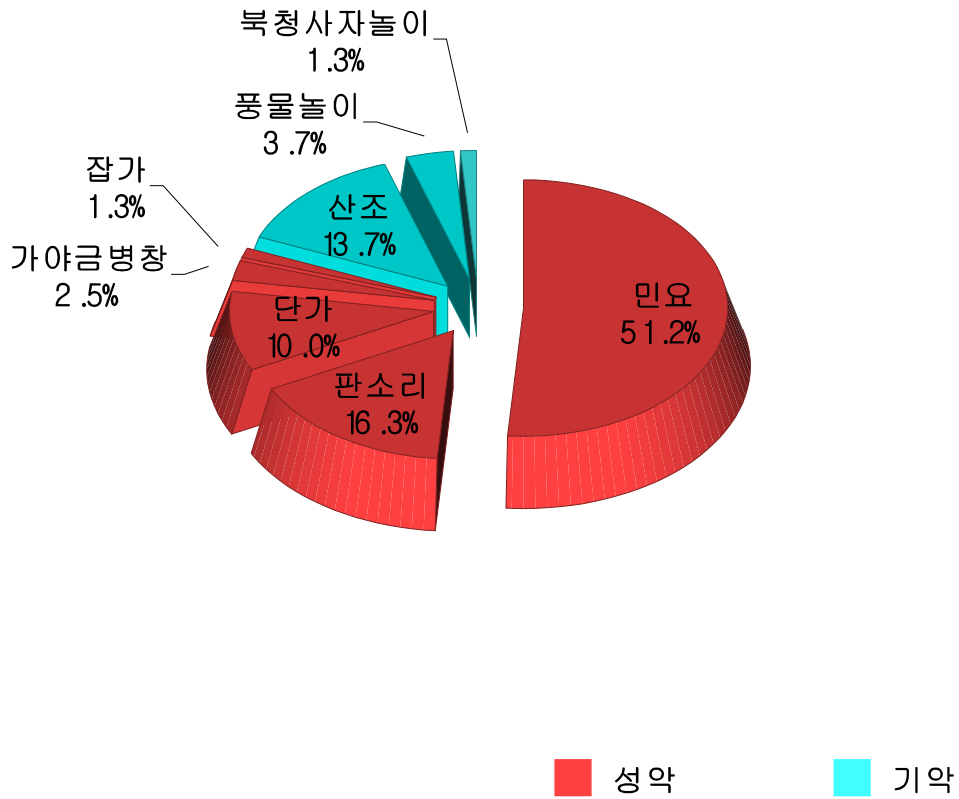
민속음악이란 주로 민간계층에서 발생하여 유행했던 음악¹⁶⁾이라 할 수 있다. 민속음악 역시 선비음악 기준과 동일하게 성악과 기악으로 분류하였고 성악곡으로는 민요, 판소리, 단가, 가야금병창, 잡가가 속하고 기악곡에는 산조, 풍물놀이, 북청사자놀이가 속한다. 민속음악을 성악과 기악으로 분류하여 각각 이에 해당되는 횟수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민속음악

구분	종류	중1	중2	중3	계	(백분율)
성악	민요	38	3		41	65(81.3%)
	판소리	4	2	7	13	
	단가		1	7	8	
	가야금병창		1	1	2	
	잡가			1	1	
기악	산조	1	1	9	11	15(18.7%)
	풍물놀이		3		3	
	북청사자놀이		1		1	
계		43	12	25	80	80(100%)

16) 김성경, 『한국음악입문』 (은하출판사, 2004), p.52

성악과 기악



민속음악은 총 80회로 성악곡이 65회(81.3%), 기악곡이 15회(18.7%)로 성악곡이 월등히 많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성악곡 중 민요가 38회(51.2%)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인데 1학년 교과서에 38회, 2학년 교과서에 3회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판소리가 13회(16.3%), 단가가 8회(10.0%) 제시되었고 기악곡은 산조가 11회(13.7%)로 제시되어 기악곡중 높은 분포도를 보인다. 산조는 특히 3학년 교과서에서 고루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성악곡

민요는 각 음악적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기, 서도, 동부, 남도, 제주 민요의 5도권으로 나누고 있다.¹⁷⁾ 이에 따라 교과서에 나오는 민요곡의 횟수는 아래의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13> 각 지역별 민요 분류

구분	종류	계	
경기민요	•군밤타령 •경복궁타령	•방아타령(2) •도라지타령(2)	6(14.6%)
서도민요	•수심가(3) •천안삼거리	•몽금포타령(2) •염음수심가(3)	9(22.0%)
동부민요	•강원도아리랑(2) •정선아라리	•한오백년(3) •뱃노래(2)	8(19.5%)
남도민요	•강강술래 •농부가 •기와밟기 •대문놀이 •딧석물기	•진도아리랑(4) •남생아 놀아라 •고사리 꺾기 •청어엮기	12(29.3%)
제주민요	•이야흥타령(2) •오돌또기(2)	•너영나영 •해녀가	6(14.6%)
계			41(100%)

* ()곡의 횟수

민요는 총 41곡으로 경기민요가 6곡, 서도민요가 9곡, 동부민요가 8곡, 남도 민요가 12곡, 제주민요가 6곡, 놀이노래가 6곡으로 제시되었다. 경기민요에는 군밤타령, 방아타령, 경복궁 타령, 도라지 타령이 제시되었고, 서도민요에는 수심가, 몽금포타령, 천안삼거리, 염음수심가가 제시되었는데 수심가와 염음수심가가 3회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동부민요에는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 정선 아리랑, 뱃노래가 제시되었고 남도민요로는 강강술래, 진도아리

17) 이성천외 4명, 『국악개론』 (도서출판 풍남, 1999), p.170

랑, 농부가와 놀이 노래인 남생아 놀아라, 기와밟기, 고사리 꺾기, 대문놀이, 청어여기, 덕석몰기가 있다. 제주민요로는 이야흥 타령, 너영나영, 오돌또기, 해녀가가 제시되었다.

판소리는 총 13회 제시되었는데 1학년 4회, 2학년 2회, 3학년 7회 제시되었다. 그 중 '홍보가'가 6회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춘향가'가 4회, '심청가'가 2회, '수궁가'가 1회 제시되었다.

단가는 총 8회 제시되었는데 2학년에서 1회, 3학년에서 7회 제시되었다. '진국명산', '고고천변', '만고강산'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 '진국명산'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가야금병창은 총 2회로 2학년 동진 교과서에 '새타령'과 3학년 아침나라 교과서에 '내 고향의 봄'이 제시되었다.

잡가는 3학년 교학 교과서에 '유산가'가 제시되었다.

(2) 기악곡

기악곡으로는 산조, 풍물놀이, 북청사자놀이가 속하는데 산조는 총 11회 제시되었는데 3학년에 9회로 모든 교과서에 감상곡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가야금 산조가 6회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거문고 산조가 2회, 대금산조가 1회 제시되었다.

풍물놀이는 총 3회로 2학년 동진, 아침나라, 지학사에 각각 한곡씩 제시되었다.

북청사자놀이는 2학년 아침나라 교과서에 제시되었다.

라) 종교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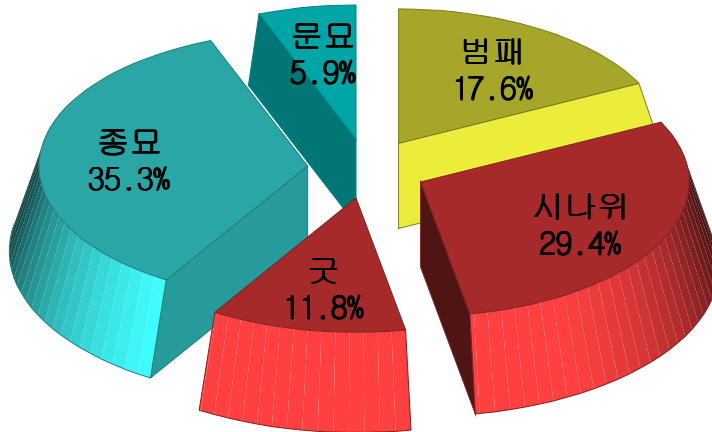
종교음악이란 종교의식이나 제례의식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말하는 것인데 불교음악, 무속음악, 제례악으로 본고에서는 분류하였다. 불교음악은 불교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무속음악이란 무속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제례악이란 나라에서 관장했던 여러 가지 제사의식에 쓰이던 음악을 총칭한다.¹⁸⁾ 종교음악을 불교음악, 무속음악, 제례악으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각각의 횟수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표14>종교음악

구분	종류	중1	중2	중3	계	(백분율)
불교음악	범패		1	2	3	3(17.6%)
무속음악	시나위		1	4	5	7(41.2%)
	굿		1	1	2	
제례악	종묘	2	2	2	6	7(41.2%)
	문묘		1		1	
계		2	6	9	17	17(100%)

18) 김성경, 전계서, p.153

불교음악/무속음악/제례악



■ 불교음악 ■ 무속음악 ■ 제례악

종교음악은 총 17회로 불교음악이 3회(17.6%), 무속음악이 7회(41.2%), 제례악이 7회(41.2%)로 무속음악과 제례악이 상대적으로 불교음악보다는 많이 제시되었다. 교과서에서 종교음악에 속하는 곡으로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무속음악으로 시나위, 굿음악, 제례음악인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이 제시되었다. 이 중 무속음악은 총 7회로 이 중 시나위가 5회로 특히 3학년 교과서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굿음악은 2회 제시되었고 제례악은 총 7회로 종묘제례악이 6회, 문묘제례악이 1회로 제시되었다. 이 중 종묘제례악은 1, 2, 3학년 교과서에 고르게 제시되었다.

2) 창작음악

창작음악이란 전통 음악적 소재(악기, 음계, 장단 등)를 이용하여 새로운 감각에 맞게 새로이 작곡된 국악작품을 말한다. 194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많은 작곡가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¹⁹⁾ 본고에서는 서양음악 어법에 따른 창작곡이 주류를 이루므로 서양음악식의 분류법에 따라 독주, 중주, 협주, 합주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악곡을 교과서별로 출현하는 각각의 곡수를 조사하면 다음의 표 15, 16, 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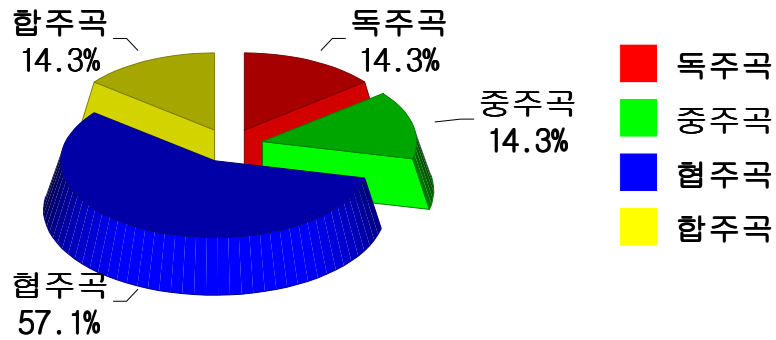
<표15> 중학교 1학년 창작음악 분류

분류	곡이름(작곡자)	계
독주곡	침향무(황병기)	1(14.3%)
중주곡	아이보개(황병기)	1(14.3%)
협주곡	방아타령(김영재)	5(57.1%)
	새야새야(강창식)	
	대바람소리(이상규)	
	신모듬(박범훈) ²⁰⁾	
합주곡	신뱃놀이(원일)	1(14.3%)
계		8(100%)

19) 이홍수 외 4명,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두산동아, 2004), p.77

20) 신모듬은 아침나라, 지학사 교과서에 각각 1회씩 제시되었다.

중학교 1학년 창작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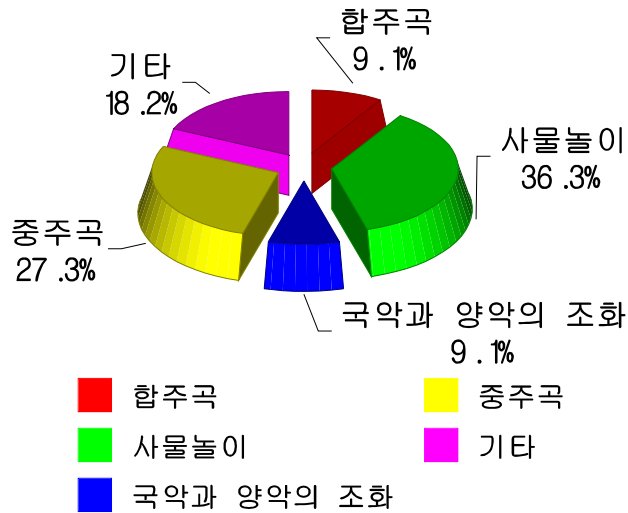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창작음악은 총 8회로 협주곡이 5회 (57.1%), 독주, 중주, 합주곡이 각각 1회씩 제시되었다. 협주곡은 해금 협주곡 ‘방아타령’,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와 사물악기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이 제시되었다. 독주곡은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가 제시되었고 중주곡은 가야금과 대금 중주인 ‘아이보개’, 합주곡은 ‘신뱃놀이’가 제시되었다.

<표16> 중학교 2학년 창작음악 분류

분류	곡이름(작곡자)	계
합주곡	송춘곡(이강덕)	1(9.1%)
사물놀이	사물놀이(김덕수)	4(36.3%)
국악과 양악의 조화	초원(김영동)	1(9.1%)
중주곡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자바(백대웅)	3(27.3%)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시퀀스(전순희)	
	세 대의 가야금을 위한 대화(이병욱)	
기타	새몽금포타령(황철익)	2(18.2%)
	가시리(나인용)	
계		11(100%)

중학교 2학년 창작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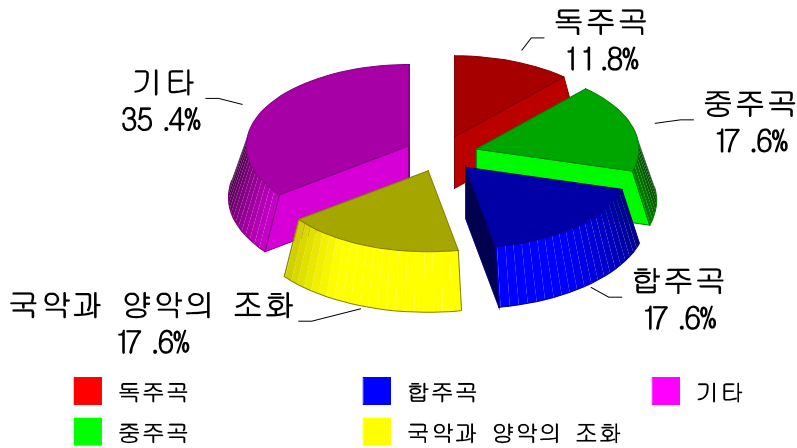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창작음악은 총 11회로 사물놀이가 4회(36.3%), 중주곡이 3회, 국악과 양악의 조화, 합주곡, 기타가 각각 1회씩 제시되었다. 사물놀이는 4개 교과서에 각각 제시되었고 중주곡은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자바’,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시퀀스’, ‘세 대의 가야금을 위한 대화’가 제시되었다. 합주곡으로는 김기수의 ‘송춘곡’을 제시하였고 국악과 양악의 조화로는 김영동의 ‘초원’을 제시하였다. 기타는 성악곡과 전자음악 등을 포함시킨 것인데 ‘새몽금포타령’과 ‘가시리’는 성악곡에 속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표17> 중학교 3학년 창작음악 분류

분류	곡이름(작곡자)	계
독주곡	침향무(황병기)	2(11.8%)
	일출(정대석)	
중주곡	아이보개(황병기)	3(17.6%)
	캐논(백대웅)	
	산행(김영동)	
합주곡	허튼타령(이병욱)	3(17.6%)
	신뱃놀이(원일)	
	타령에 의한 변주곡(이성천)	
국악과 양악의 조화	고구려의 혼(홍동기)	3(17.6%)
	신관동별곡(백대웅)	
	토끼이야기	
기타	두레사리(이해식)	6(35.4%)
	황성가는대목(김희조)	
	금수강산(슬기둥)	
	석사자(강석희)	
	형산(황성호)	
	어린왕자	
계		17(100%)

중학교 3학년 창작음악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창작음악은 총 17회로 중주곡, 합주곡, 국악과 양악의 조화가 각각 3회씩, 독주곡이 2회, 기타가 6회 제시되었다.

국악과 양악의 조화로는 홍동기의 ‘고구려의 혼’, 백대웅의 ‘신관동별곡’, ‘토끼이야기’가 제시되었고 중주곡은 가야금과 대금 중주곡인 ‘아이보개’ 가야금 3중주 세 대의 가야금을 위한 ‘캐논’, 가야금과 기타의 2중주 ‘산행’이 제시되었다. 합주곡은 ‘허튼타령’과 ‘신벚놀이’,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변주곡’이 제시되었다. 독주곡은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와 거문고 독주곡 ‘일출’을 제시하였다. 기타로는 ‘두레사리’, 심청가 中 ‘황성가는 대목’과 전자악기와 목소리의 조화 ‘금수강산’, ‘석사자’와 심상가곡 ‘형산’, ‘어린왕자’가 제시되었다. 기타항목은 성악곡이나 전자악기를 사용한 곡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가) 독주곡

독주곡은 총 3회 제시되었는데 1학년 천재교육 교과서에, 3학년 성안당 교과서에 각각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가 제시되었다. 3학년 아침나라 교과서에 거문고 독주곡 ‘일출’이 제시되었다. 독주곡의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8> 독주곡 분류

종류	중1	중2	중3	계
가야금‘침향무’	1		1	2
거문고‘일출’			1	1
계	1		2	3

나) 중주곡

중주곡은 총 7회 제시되었는데 1학년 두산 교과서, 3학년 동진 교과서에 가야금과 대금이 어우러진 ‘아이보개’와 2학년 천재교육 교과서에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자바’,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시퀀스’, ‘세 대의 가야금을 위한 대화’, 3학년 지학사 교과서에 ‘캐논’이 제시되었다. 3학년 태성 교과서에 가야금과 기타의 2중주인 ‘산행’이 제시되었다. 중주곡의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9> 중주곡 분류

종류	중1	중2	중3	계
가야금+ 대금	1		1	2
가야금3중주		3	1	4
가야금+ 기타			1	1
계	1	3	3	7

다) 협주곡

협주곡은 총 4곡으로 모두 1학년 성안당, 세광, 아침나라, 지학사 교과서에 해금, 가야금, 대금, 사물악기를 위한 협주곡이 제시되었다.

라) 합주곡

합주곡은 총 5회 제시되었는데 1학년 아침나라, 3학년 지학사에 ‘신밧놀이’와 2학년 성안당에 ‘송춘곡’, 3학년 지학사에 ‘허튼타령’과 천재교육에 ‘타령에 의한 변주곡’이 제시되었다. 합주곡의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표20> 합주곡 분류

종류	중1	중2	중3	계
신밧놀이	1		1	2
송춘곡		1		1
허튼타령			1	1
타령에 의한 변주곡			1	1
계	1	1	3	5

마)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총 4회 제시되었는데 2학년 동진, 두산, 성안당, 아침나라 교과서에 제시되었다.

바) 국악과 양악의 조화

국악과 양악의 조화란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사용한 곡으로써 총 4곡이 제시되었는데 2학년 세광에 ‘초원’, 3학년 아침나라에 ‘고구려의 혼’, 태성에 ‘신관동별곡’, ‘토끼 이야기’가 각각 제시되었다. 국악과 양악의 조화를 분류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1> 국악과 양악의 조화 분류

종류	중1	중2	중3	계
초원		1		1
고구려의혼			1	1
신관동별곡			1	1
토끼이야기			1	1
계		1	3	4

사) 기타

기타는 성악곡이나 영상과 전자음악 등의 곡으로 분류하였다. 총 8곡으로 2학년 동진에 ‘새뭉금포타령’과 태성에 ‘가시리’, 3학년 두산에 ‘두레사리’, 성안당에 심청가 中 ‘황성가는대목’, 지학사에 ‘금수강산’, 태성에 ‘석사자’와 심상가곡 ‘형산’, ‘어린왕자’가 각각 제시되었다.

3. 교과서와 통일안과의 비교

이 항목에서는 본고에서 또 하나의 중요 연구 과제로서 교과서에 나오는 각종 용어나 민요 악보가 올바르게 기술되고 제시되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조사하였다. 첫째는 교과서 별로 수록된 용어가 통일안과 비교해서 그 다른 점을 조사하였고 둘째는 통일안에는 언급이 누락되어 있으나 동일한 용어명을 각 교과서별로 서로 다르게 기술한 것들을 비교 조사하였다.

1) 교과서별(통일안내)

통일안에 근거하여 교과서에 나온 용어나 악보가 서로 다른 것을 교과서 별로 분류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아래의 표로 만들었다.

<표22> 교과서의 수록 내용과 통일안과의 차이점

교과서	학년	쪽수	교과서 수록 내용	통일안
교학연구사	1	71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3	63	진양조, 중모리, 휘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 엇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홍부가	홍보가
동진출판사	1	24	메기고 받는 형식	메기고 받는 소리
			세마치	세마치 장단
			강강술래(내림나장조, 8/12박자, 중모리장단)	강강술래(사장조, 4/12박자, 중모리장단)
	25	군밤타령(사장조, 8/12박자)	군밤타령(내림나장조, 8/12박자, 자진모리 장단)	
		강원도아리랑(사장조, 8/6박자, 지나가다 한개씩 놓고간 돌이 돌무더기 되어서 길표 가됐네)	강원도아리랑(사장조, 8/10박자, 엇모리장단,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마라 누구를 피자고 머리에 기름)	
3	29	영산회상	현악영산회상	
3	32	영산회상	현악영산회상	
두산	1	57	홍부가	홍보가
	2	37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57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3	17	홍부가	홍보가
			64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휘모리
성안당	1	14	영산회상	현악영산회상
		34	세마치	세마치장단
		35	아주까리 동백아 이야홍타령	강원도아리랑 이야홍타령
	2	41	팽가리	팽과리
	3	16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자진모리장단, 휘모리장단, 단모리장단
			27	영산회상
세광	1	60	몽금포타령(사장조, 4/12박자, 중모리 장단)	몽금포타령(내림 사장조, 8/12박자, 굿거리 장단)

	61	한오백년(다장조, 8/9박자, 세마치장단)	한오백년(사장조, 4/12박자, 중모리 장단)	
		오돌또기(내림마장조, 8/6박자, 굿거리 장단)	오돌또기(다장조, 8/12박자, 굿거리 장단)	
		돈돌날이	돈돌라리	
	3	26	홍부가	홍보가
	81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옛모리, 단모리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굿거리장단, 옛모리장단, 단모리장단	
아침나라	1	30	세마치	세마치장단
		31	중중모리	중중모리장단
			한오백년(사장조, 8/9박자)	한오백년(사장조, 4/12박자, 중모리 장단)
		62	진양조, 중모리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63	초수대엽	초삭대엽
	2	25	장고	장구
		36	초수대엽	초삭대엽
	3	59	중중모리,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중중모리장단,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휘모리장단
지학사	2	12	편수대엽	편삭대엽
천재교육	1	56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휘모리장단, 단모리장단
	2	50	초수대엽	초삭대엽
	3	36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옛모리, 자진모리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옛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태성	2	49	상현도드리	삼현도드리
	3	69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단모리), 진양조, 옛모리, 자진모리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단모리장단), 진양조장단, 옛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가) 교학

중학교 1학년 교과서 p.71을 보면 현악영산회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악곡용어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현악영산회상을 설명하면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이라고 제시하였는데 통일안에 보면 상령산은 상영산, 중령산은 중영산, 세령산은 세영산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p.63을 보면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으로 진양조, 중모리, 휘모리, 엇모리, 자진모리가 있다고 하였다. 통일안을 보면 진양조는 진양조장단, 중모리는 중모리장단, 휘모리는 휘모리장단, 엇모리는 엇모리장단, 자진모리는 자진모리장단으로 통일되어 있고, 또 판소리와 창극을 설명하고 있는데 판소리 5마당 중 하나인 흥부가를 제시하였으나 통일안에는 흥부가가 흥보가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상이점은 현재도 국악 공연이나 학계 현장에서도 조차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상 어느 하나의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될 필요는 있는 것이다.

나) 동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p.24에 보면 우리나라 민요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메기고 받는 형식과 경기민요조의 장단으로 세마치를 제시하였다. 통일안에는 메기고 받는 형식이 메기고 받는 소리로, 세마치가 세마치장단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다. p.25에 보면 우리나라 민요곡을 실어놓았다. 각 지방별 민요를 골고루 제시해놓았는데 강강술래, 군밤타령, 수심가, 강원도 아리랑, 이야흥타령 총 5곡이 실려 있는데 그 중 강강술래는 내림나장조, 8/12박자, 중모리장단으로 제시하였으나 통일안에는 사장조, 4/12박자, 중모리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군밤타령은 사장조, 8/12박자만 제시되어 있고 장단의 표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통일안에서는 내림나장조, 8/12박자, 자진모리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강원도 아리랑은 사장조, 8/6박자만 제시되었고 장단은 표기되지 않았는데 통일안에서는 강원도 아리랑이 사장조, 8/10박자, 엇모리 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 곡은 통일안과 교과서의 가사내용도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는 1~2소절이 ‘지나가다 한개씩 놓고간 돌이 돌무더기 되어서 길표가 됐네’로 실려 있으나 통일안에는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마라 누구를 괴자고 머리에 기름’이라고 나와 있어서 가사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수심가와 이야흥타령은 통일안 민요 표준악보 22곡에 포함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1학년 교과서 p.29에 영산회상 중 상영산이, 3학년 교과서 p.32에 영산회상 중 타령이 제시되었는데 통일안을 보면 영산회상은 현악영산회상이라고 용어가 통일되어 있다. 민요의 악조 문제는 특히 문제가 된다.

조가 서로 다를 경우 5도권에 따른 민요의 음악적 특징이 모호해져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민요의 가사는 부르는 사람과 부르는 시대, 환경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사를 얼마든지 다르게 바꾸어 부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 또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우선 통일시켜 불리게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다) 두산

중학교 1학년 교과서 p.57을 보면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을 실어놓았다. 통일안에 보면 흥부가는 흥보가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p.37에 장단설명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가 제시되었는데 통일안을 보면 진양조는 진양조장단, 중모리는 중모리장단, 중

중모리는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는 자진모리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p.57을 보면 현악 영산회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악곡의 내용에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이라고 실려있는데 통일안에 보면 상령산은 상영산으로, 중령산은 중영산으로, 세령산은 세영산으로 통일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p.17 판소리 5마당을 설명하였는데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가 제시되었다. 통일안을 보면 흥부가는 흥보가로 통일되어 있다. p.64에 장단설명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휘모리가 제시되었는데 통일안을 보면 진양조는 진양조장단, 중모리는 중모리장단, 중중모리는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는 자진모리장단, 단모리는 단모리장단, 휘모리는 휘모리장단으로 제시되었다. 앞서 교학연구사에서 살펴본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라) 성안당

앞의 교학연구사, 두산의 경우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p.14에 감상곡으로 영산회상이 제시되었는데 통일안을 보면 영산회상은 현악영산회상으로 통일되어 있다. p.34에 보면 경기 민요 장단으로 세마치가 쓰인다고 하였는데 통일안을 보면 세마치는 세마치장단으로 제시되었다. p.35를 보면 우리나라 민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도별 민요 분포에서 보면 강원도 민요에 ‘아주까리 동백아’가 제시되었는데 통일안에 보면 ‘아주까리 동백아’는 강원도 아리랑으로 통일되어 있다. 제주도 민요에 이야흥 타령이라고 제목이 실려 있다. 통일안을 보면 이야흥 타령은 이야흥 타령으로 통일되어 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p.41을 보면 사물놀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감상자료 6에 영남가락을 설명하면서 뽕가리라고 용어가 설명되어 있다. 통일안에 보면 뽕가리는 뽕과리로 통일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p.16에 산조의 장단설명으로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가 제시되었는데 통일안에 보면 자진모리는 자진모리장단, 휘모리는 휘모리장단, 단모리는 단모리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p.27에 전통 기악곡을 설명하며 영산회상을 제시하였는데 통일안을 보면 영산회상은 현악영산회상으로 통일되어 있다.

마) 세광

중학교 1학년 세광 교과서 p.60-61에 보면 우리나라 민요곡을 제시하였는데 각 지방별 민요를 분리하여 곡이름을 실어놓았다. 함경도 지방 민요로 돈돌날이를 실어놓았는데 통일안에 보면 돈돌날이는 돈돌라리로 통일되어 있다. 또한 각 지방별로 몽금포타령, 도라지타령, 진도 아리랑, 한오백년, 오돌또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몽금포타령이 교과서에는 라장조, 4/12박자, 중모리 장단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통일안에서는 내림 마장조, 8/12박자, 굿거리 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한오백년은 교과서에 다장조, 8/9박자, 세마치장단으로 제시하였는데 통일안에는 사장조, 4/12박자, 중모리 장단으로 실려 있다. 오돌또기는 교과서에 내림마장조, 8/6박자, 굿거리장단으로 제시하였으나 통일안에는 다장조, 8/12박자, 굿거리 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도라지타령과 진도아리랑은 통일안에 민요 표준악보 22곡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명이 실려 있지 않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p.26을 보면 동서양의 극음악을 비교하였는데 그 중 판소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흥부가라고 제시하였으나 통일안에는 흥부가는 흥보가로 통일되어 있다. p.81에 산조를 설명하면서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엇모리, 단모리가 제시되어 있으나 통일안에는 진양조는 진양조장단, 중모리는 중모리장단, 자진모리는 자진모리장단, 중중모

리는 중중모리장단, 굿거리는 굿거리장단, 엇모리는 엇모리장단, 단모리는 단모리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바) 아침나라

중학교 1학년 교과서 p.30에 경기민요조 장단으로 세마치가 제시되었는데 통일안을 보면 세마치는 세마치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p.31에 남도민요 장단으로 중중모리가 제시되었는데 통일안을 보면 중중모리는 중중모리장단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민요가 각 지방별로 한곡씩 실려 있는데 엽음수심가, 방아타령, 진도아리랑, 한오백년, 해녀가가 있고 한오백년이 교과서에는 사장조, 8/9박자로 제시되어 있고 장단 표기는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통일안에 보면 사장조, 4/12박자, 중모리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p.62에 판소리 홍보가 중 박타령이 진양조, 중모리를 제시하였는데 통일안을 보면 진양조는 진양조장단, 중모리는 중모리장단으로 제시되었다. p.63에는 시조와 가곡을 비교하며 평시조 ‘동창이’와 가곡 초수대엽 ‘동창이’를 제시하였는데 통일안에는 초수대엽은 초삭대엽으로 통일되어 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p.25을 보면 사물놀이와 풍물놀이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 중 풍물놀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장고라고 하였는데 통일안에 보면 장고는 장구라고 통일되어 있다. p.36에 가곡을 설명하며 초수대엽이 제시되어 있는데 통일안에는 초수대엽은 초삭대엽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 p.59에 산조와 시나위를 설명하며 중중모리,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가 설명되어 있는데 통일안에는 중중모리는 중중모리장단, 진양조는 진양조장단, 중모리는 중모리장단, 자진모리는 자진모리장단, 휘모리는 휘모리장단으로 통일되어 있다.

사) 지학사

중학교 2학년 교과서 p.12를 보면 생소병주 수룽음 설명되어 있는데 수룽음은 전통 가곡 중에서 평룽, 계락, 편수대업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통일안에는 편수대업은 편삭대업으로 통일되어 있다.

아)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p.56에 가야금 산조를 설명하며 장단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통일안에는 진양조는 진양조장단, 중모리는 중모리장단, 중중모리는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는 자진모리장단, 휘모리는 휘모리장단, 단모리는 단모리장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p.50을 보면 가곡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곡의 연주는 ‘초삭대업’부터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부르는 연창형태가 원칙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일안에 보면 초수대업은 초삭대업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p.36에 거문고 산조를 설명하며 장단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교과서의 예에서처럼 각각의 장단 명에 ‘장단’자가 더 첨가되었을 뿐이다.

자) 태성

중학교 2학년 교과서 p.49를 보면 현악영상회상으로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상현도드리는 삼현도드리라고 용어가 통일되어 있다. 중학교 3학

년 교과서 p.69에 거문고 산조를 설명하며 장단으로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단모리), 진양조, 엇모리, 자진모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통일안에는 중모리는 중모리장단, 중중모리는 중중모리장단, 휘모리는 휘모리장단, 진양조는 진양조장단, 엇모리는 엇모리장단, 자진모리는 자진모리장단과 같이 ‘장단’ 자가 더 붙어 있을 뿐이다.

2) 악곡별 (통일안외)

여기서는 악곡별로 통일안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중 교과서마다 동일한 용어나 악곡을 상이하게 기술한 것을 추가로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가) 시조

<표23> 시조

장르	출판사	학년	쪽수	내용
‘동창이’	교학출판사	1	43	시조 음계, 내림가장조 15/8박자와 24/8박자
	동진	1	54	사장조, 5/4박자와 8/4박자, 시조 장단
	두산	1	56	내림가장조, 5/4박자와 8/4박자, 시조장단
	성안당	1	15	내림가장조, 5/4박자와 8/4박자, 초장 악보, 시조장단
	아침나라	1	63	시조와 가곡의 특징 비교하여 제시
	지학사	1	70	시조 장단
	천재교육	1	38	정간보 악보, 시조 음계, 시조 장단
	교학	2	39	내림가장조, 5/4박자와 8/4박자

중학교 1학년 세광과 태성을 제외한 7개 교과서에 평시조 ‘동창이’가 제시되었는데 교학연구사 p.43에서는 시조 음계와 내림가장조, 15/8박자와 24/8박자로 악보가 제시되었다. 동진출판사 p.54에는 사장조, 5/4박자와 8/4박자, 시조 장단인 5박과 8박 장단이 제시되었고 두산은 p.56에 내림가장조,

5/4박자와 8/4박자, 시조장단을 제시하였다. 성안당은 p.15에 내림가장조, 5/4박자와 8/4박자, 초장만 악보를 제시하였고 시조장단을 실었다. 아침나라 p.63에 시조와 가곡을 비교하며 특징을 기술하였고 악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학사는 p.70에 5, 8박 시조 장단만을 제시하고 악보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천재교육은 p.38에 정간보 악보를 제시하고 시조 음계와 장단을 설명하였다. 중학교 2학년 교학연구사 p.39에서는 동창이가 내림가장조, 5/4박자와 8/4박자로 제시되었다. 출판사 별로 똑같은 곡을 실었지만 악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악조, 박자 등의 기보법을 통일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혼란의 여지가 크다. 끝으로 시조의 시김새의 표시 문제에 대한 교과서마다의 생략수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싶다. 일례로 요성과 같은 시김새 표시의 유무가 교과서 별로 천차만별이다.

나) 영산회상

<표24> 영산회상

장르	출판사	학년	쪽수	내용
현악영산회상 '상영산'	교학	1	71	오선악보(단소/대금/피리/해금/장구/양금/가야금/거문고/)로 제시, 내림 라장조
	동진	1	29	내림사장조, 10/4박자, 거문고 악보
	성안당	1	14	전체적인 설명
관악영산회상 '상영산'	천재교육	3	70	오선악보(대금/피리/장구/해금)로 제시, 내림 라장조
	태성	3	28	정간보로 피리, 대금 악보 제시
현악영산회상 '가락달이',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두산	2	57	내림라장조, 어떤 악기의 악보인지 제시되지 않음
현악영산회상 '타령'	태성	2	49	타령장단, 단소보를 정간보와 5선음보로 제시
	동진	3	32	대금악보, 다장조, 3/4박자
영산회상	성안당	3	27	전체적인 설명

현악영산회상 '세영산'	지학사	3	66	단소보를 정간보로 제시
-----------------	-----	---	----	--------------

조성면에선 내림라장조, 내림사장조, 다장조 등의 세 가지 조성이 교과서별로 혼용하여 쓰이고 있다. 참고로 조성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정간보로 제시된 것이다. 9곡으로 구성된 영산회상 중 두산의 경우는 앞의 가장 느린 곡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곡을 악보로 실었다. 그 외의 경우 상영산, 타령, 세영산 순으로 한곡씩만 그것도 일부만 실었다.

영산회상 곡은 원래 세악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악보에 나타난 악기 종류는 교학사를 제외하면 일부 악기의 연주 악보만 실었다.

다) 판소리

<표25> 판소리

장르	출판사	학년	쪽수	내용
'홍보가'	두산	1	57	'박타령' (바장조, 18/8박자, 진양조 장단) (사장조 6/8박자 중중모리 장단)
	아침나라	1	62	'박타령' (바장조, 12/8박자, 진양조 장단) '제비몰이'(사장조, 12/8박자, 중중모리)
	지학사	1	71	'박타령' (다장조, 2/4박자, 휘모리 장단)
	태성	1	54	'화초장타령'(다장조, 12/8박자, 중중모리)
	교학	3	63	'제비몰이'(바장조, 12/8박자, 중중모리 장단)
	세광	3	26	'가난타령'(바장조, 18/8박자, 진양 장단)
'춘향가'	천재교육	2	59	'천자뒤풀이' 다장조, 6/8박자, 중중모리
	성안당	3	15	'쑥대머리', 사장조, 12/8박자
	세광	3	27	'사랑가' 내림마장조, 12/8박자, 중중모리
	지학사	3	42- 43	'기산영수 별건곤' 내림마장조, 12/8박자 , 중중모리
				'적성가' 사장조, 18/8박자, 진양 '갈까보다' 내림마장조, 12/4박자, 느린 중 모리

				‘춘향모 돌아온다’ 내림마장조, 12/8박자, 자진모리 ‘호남각처로 분발’ 내림마장조, 12/8박자, 휘모리
‘심청가’	두산	2	36	‘심청의 고백’ 내림 가장조, 12/8박자, 자진모리
	교학	3	63	‘범피중류’ 바장조, 6/4박자, 진양

판소리는 5마당 중 홍보가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중학교 1학년은 모두 홍보가를 제시하였는데 두산 p.57에서는 홍보가 중 박타령을 바장조, 18/8박자, 진양조 장단과 사장조, 6/8박자, 중중모리 장단으로 제시하였다. 아침나라는 p.62에서 홍보가 중 서창, 심술타령, 박타령, 제비몰이를 제시하였는데 이중 박타령은 바장조, 12/8박자, 진양조 장단으로 제시하였다. 제비몰이는 사장조, 12/8박자, 중중모리 장단으로 제시하였다. 지학사 역시 홍보가 중 박타는 대목으로 다장조, 2/4박자, 휘모리장단으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 교학 p.63 홍보가 중 제비몰이를 바장조, 12/8박자, 중중모리 장단으로 제시하였고 세광 p.26 홍보가 중 가난타령은 바장조, 18/8박자, 진양 장단으로 제시하였다. 춘향가는 중학교 2학년 천재교육 p.59 천자뒤풀이를 다장조, 6/8박자, 중중모리장단으로 제시하였고 중학교 3학년 성안당 p.15 쑥대머리를 사장조, 12/8박자로 제시하였다. 세광 p.27 사랑가는 내림마장조, 12/8박자, 중중모리 장단으로 제시, 지학사 p.42-43 기산영수 별건곤은 내림마장조, 12/8박자, 중중모리장단 적성가는 사장조, 18/8박자, 진양조, 갈까보다는 내림마장조, 12/4박자, 느린 중모리 장단, 춘향모 돌아온다는 내림 마장조, 12/8박자, 자진모리 장단 호남각처로 분발은 내림 마장조, 12/8박자, 휘모리 장단으로 제시되었다. 심청가는 중학교 2학년 두산 p.36 심청의 고백에 내림가장조, 12/8박자, 자진모리 장단으로 제시, 중학교 3학년 교학 p.63 범피중류를 바장조, 6/4박자, 진양조 장단으로 제시하였다.

라) 가곡

<표26> 가곡

장르	출판사	학년	쪽수	내용
‘초삭대엽’	아침나라	1	63	가곡‘초삭대엽’과 시조‘동창이’ 비교
	교학	2	38	내림 가장조, 가곡 장단
	두산	2	16	내림 가장조, 가곡 장단
	성안당	2	14	내림 가장조, 가곡 장단
	세광	2	62	내림 가장조, 16/4박자, 가곡 장단
‘언락’	아침나라	2	36	내림가장조, 가곡장단
	천재교육	2	50	정간보 악보, 가곡장단

중학교 1학년 아침나라 p.63에는 초삭대엽이 시조 동창이와 비교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은 교학 p.38에서는 내림 가장조, 가곡 장단인 16박 장단이 제시되었다. 두산 p.16에서도 교학과 동일하게 제시되었고 성안당은 p.14에 교학과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세광 p.62에 초삭대엽이 내림 가장조, 16/4박자, 가곡 장단이 설명되었다. 중학교 2학년 아침나라 p.36은 언락이 제시되었는데 내림가장조, 가곡 장단이 설명되었고 천재교육 p.50에는 정간보와 가곡 장단이 제시되었다.

마) 산조

<표27> 산조

장르	출판사	학년	쪽수	내용
가야금산조	천재교육	1	56	산조설명
	교학	3	62	진양~단모리 악보
	동진	3	21	박상근류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 악보
	두산	3	64	진양~단모리 악보
	세광	3	81	김죽파류 진양조와 중모리
	성안당	3	16	최옥삼류 진양조, 가야금의 구조와 조율법, 주법
	아침나라	3	59	산조와 시나위 비교 설명
‘대금산조’	두산	2	37	진양~자진모리 악보와 장단

	지학사	3	30	한범수류 진양~자진모리 그림악보와 장단
'거문고산조'	천재교육	3	36	신쾌동류 '진양조'와 한갑득류 '진양조'를 비교 설명
	태성	3	69	신쾌동류 진양조 장단

산조는 가야금 산조, 대금 산조, 거문고 산조가 제시되었는데 이 중 가야금 산조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가야금 산조는 중학교 1학년 천재교육 p.56에 가야금 산조 설명만 제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 교학출판사 p.62에 진양조~단모리를 악보로 제시하였는데 어떤 악기의 산조이며 어떤 유파의 산조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동진 p.21에 박상근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악보가 제시되었다. 두산 p.64에 진양조~ 단모리를 악보로 제시되었으나 어떤 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세광 p.81에 김죽파류 진양조와 중모리가 설명되어 있다. 성안당 p.16에 최옥삼류 진양조가 악보로 제시되어 있고 가야금의 구조와 조율법, 주법이 제시되었다. 아침나라 p.59에는 산조와 시나위를 비교 설명하였다. 대금산조는 중학교 2학년 두산 p.37에 진양~자진모리 악보와 장단을 실었다. 중학교 3학년 지학사 p.30에 한범수류 진양~자진모리 그림악보와 장단을 설명하였다. 거문고 산조는 중학교 3학년 천재교육 p.36에 신쾌동류 진양조와 한갑득류 진양조를 비교 설명 하였다. 태성 p.69에 신쾌동류 진양조 장단을 제시하였다.

바) 단가

<표28> 단가

장르	출판사	학년	쪽수	내용
'진국명산'	교학	3	63	바장조, 6/4박자, 중모리 장단
	두산	3	17	바장조, 6/4박자, 중모리 장단
	성안당	3	14	내림가장조, 3/4박자, 중모리
	천재교육	3	31	단가설명
'만고강산'	두산	2	36	다장조, 12/4박자, 중모리 장단
	동진	3	20	다장조, 12/14박자
	세광	3	26	다장조, 6/4박자, 중모리 장단

단가는 진국명산과 만고강산, 고고천변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 진국명산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중학교 3학년 교학 p.63에 바장조, 6/4박자, 중모리 장단으로 제시되었다. 두산 p.17에 교학과 같이 설명되었다. 성안당 p.14에 내림가장조, 3/4박자, 중모리 장단으로 제시되었고 천재교육 p.31에 단가설명을 실었다. 만고강산은 중학교 2학년 두산 p.36에 다장조, 12/4박자, 중모리 장단으로 제시되었고 중학교 3학년 동진 p.20에 다장조, 12/4박자, 장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세광 p.26에 다장조, 6/4박자, 중모리 장단으로 설명하였다.

사) 수제천

<표29> 수제천

장르	출판사	학년	쪽수	내용
수제천	교학	1	70	내림가장조, 9/8박자, 소금,대금,피리,장구, 좌고,해금,아쟁 악보제시, 연음부분
	세광	1	79	연례악 설명
	천재	1	69	수제천 설명
	태성	1	34	내림가장조, 9/8박자, 연음부분
	아침나라	2	57	내림가장조, 9/8박자, 연음부분
	동진	3	52	내림가장조, 9/8박자, 피리악보, 연음부분
	두산	3	65	내림가장조, 9/8박자, 1~3장 악보

	성안당	3	15	내림마장조, 대금, 피리, 아쟁, 장구 악보
	세광	3	80	내림가장조, 9/8박자, 대금, 피리, 악보 연습부분
	지학사	3	62	내림마장조, 대금, 피리, 장구 악보

중학교 1학년 교학 p.70에 수제천이 내림가장조, 9/8박자, 스코어(소금, 대금, 피리, 장구, 좌고, 해금, 아쟁)보를 제시하였고 연습부분을 나타내었다. 세광 p.79에는 연례악에 대한 설명만 제시하였고 천재 p.69에는 수제천에 대한 설명만 제시하였다. 태성 p.34에 내림가장조, 9/8박자, 연습부분이 제시되었고 중학교 2학년 아침나라 p.57에도 태성과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중학교 3학년 동진 p.52에 내림 가장조, 9/8박자, 피리악보를 제시하고 연습부분을 나타내었다. 두산 p.65에 내림가장조, 9/8박자 1~3장 악보를 제시하였으나 어떤 악기의 악보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성안당 p.15에는 내림마장조, 대금, 피리, 아쟁, 장구 악보를 각각 제시하였다. 세광 p.80에는 내림가장조, 9/8박자, 대금, 피리, 악보와 연습부분을 제시하였다. 지학사 p.62에 내림마장조, 대금, 피리, 장구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4. 국악 감상 영역의 제안점

이상에서 각 학년별 감상곡으로 언급된 주요곡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학년 국악 감상곡에는 궁정음악으로 수제천, 여민락, 취타가 수록되었고 선비음악으로 시조, 영산회상, 민속음악으로 민요와 판소리, 종교음악으로 종묘 제례악, 창작음악으로 협주곡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2학년 국악 감상곡에는 궁정음악으로 수제천, 여민락, 보허자가 수록되었고, 선비음악으로 가곡, 영산회상이, 민속음악으로 민요, 풍물놀이, 종교음악으로 종묘 제례악, 창작음악으로 사물놀리와 중주곡 특히 가야금 중주곡이 많이

수록되었다.

3학년 국악 감상곡에는 궁정음악으로 수제천과 대취타가 수록되었고 선비음악으로 영산회상, 민속음악으로 판소리, 단가, 산조, 종교음악으로 시나위, 범패, 종묘제례악이 창작음악으로는 기타로 분류한 성악곡과 전자음악이 주로 수록되었다.

1학년 국악 감상곡은 민요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 민속음악이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많이 제시된 결과를 낳았다. 2학년 국악 감상곡은 가곡의 영향으로 선비음악이 다른 음악에 비해 많이 제시되었다. 3학년 국악 감상곡은 산조, 판소리, 단가의 영향으로 민속음악이 많이 제시되었고 궁정음악과 종교음악도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각 학년별로 필수 감상 악곡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학년 감상곡으로 수제천, 취타와 대취타, 종묘제례악을 제안한다. 연례악이나 군례악 종류인 궁정음악과 종교음악인 제례악을 먼저 감상한다면 우리나라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왕실에서 전해왔던 음악을 듣고 우리 전통음악의 가장 고풍스런 예술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학년 감상곡으로 가곡, 가사, 시조, 영산회상, 천년만세를 제안한다. 선비음악에 속하는 곡을 감상함으로써 민간 사대부 층에서 향유한 음악을 들으며 당시 선비들의 풍류스런 고급 예술 정신과 생활 모습 등을 느낄 수 있다.

3학년 감상곡으로 민요, 판소리, 단가, 산조, 시나위를 제안한다. 민속음악에 속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궁정음악이나 선비음악과 비교하여 그들의 음악을 다르게 향유하여 즐기는 예술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국악 중에서도 느린 템포의 궁정 및 선비음악을 먼저 감상하여 그 안에 담긴 음악적인 멋과 맛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 사물놀이와 같이 빠른 템포의 심신을 직접적으로 자극시키는 음악을 먼저 들려주면 더더욱 느린 음악 안에 담긴 느낌의 미학을 감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느낌의 정신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작음악의 경우 전통음악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상하게 함으로써 전통음악과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좀더 체계적으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9종 교과서의 국악 감상영역을 분석 및 분류하였고, 국립 국악원이 제시한 통일안을 근거로 교과서의 수록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9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감상곡은 총 210곡으로 이 중 1학년이 88곡, 2학년이 53곡, 3학년이 69곡으로 1학년 교과서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저학년에서는 우선 실제적인 악곡을 익히기 전에 감상을 통한 악곡의 사전 이해를 전제로 한 듯하다.

둘째,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분류한 결과 총 210곡 중 전통음악이 82.9%를 차지하고, 창작음악이 17.1%를 차지해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창작음악보다도 전통음악을 선행 감상하여 이해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차후 이러한 감상이 적절히 잘 운영된 연후에는 다양한 창작음악에 대한 감상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전통음악을 통일안에 근거해서 궁정음악, 선비음악, 민속음악, 종교음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1학년은 민속음악, 2학년은 선비음악, 3학년은 역시 민속음악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었다.

넷째, 궁정음악은 연례악이 67.7%, 군례악이 32.3%로 연례악이 많이 제시되었고 선비음악은 성악곡이 52.4%, 기악곡이 47.6%로 성악곡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민속음악은 성악곡이 80.6%, 기악곡이 19.5%로 성악곡이 훨씬 높는데 그 중 민요곡이 많이 제시되었다. 종교음악은 불교음악이 17.7%, 무속음악과 제례악이 41.2%로 무속음악과 제례악이 많이 제시되었다. 각각의 음악마다 속하는 곡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고른 분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창작음악은 1학년에서 협주곡, 2학년에서는 중주곡, 3학년에서는

기타(성악곡이나 전자음악)가 많이 제시되었다. 각 학년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더 많은 창작음악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일안을 근거로 교과서와 다른 점을 찾아 본 결과 총 42건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그 건수가 적지 않았다. 몇몇 잘못된 용어의 반복 사용으로 가져온 결과로 국악을 처음 접해 보는 학생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일곱째, 통일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들 중 악곡별로 감상곡을 조사한 결과 같은 감상곡인데도 조성, 박자, 장단, 가사 등 제시된 용어나 악보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악보 설명도 정확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창작음악의 비중을 높인다. 최근에 새로운 창작음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작음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만큼 새롭고 다양한 창작음악을 교과서에 많이 제시한다면 학생들에게 국악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둘째, 전통음악에 있어서도 특정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가르치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특정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악곡들을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립 국악원이 제시한 통일안을 토대로 용어와 악곡의 악보 등을 통일하면 국악용어의 혼란이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교과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국악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처음 접해보는 국악용어의 혼란이나 문제점을 방지하려면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같은 감상곡을 제시할 때 통일성을 갖추어 출판사별로 차이점을 줄인다. 국립 국악원이 제시한 통일안은 용어나 특정 악곡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누락된 용어나 악곡에 대한 추후 통일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같은 감상곡을 제시할 때 조성, 박자, 장단, 가사 등 제시된 용어나 악보를 통일성 있게 갖춘다면 혼란이나 문제점이 중복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통일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교과서와 비교하여 잘못 사용되는 것이 없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국악곡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활동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교과서>

고춘선·홍종건, 『중학교 음악 1, 2, 3』 세광음악출판사
김준수·이동훈, 『중학교 음악 1, 2, 3』 동진음악출판사
백병동의 4명, 『중학교 음악 1, 2, 3』 (주)천재교육
서한범외 3명, 『중학교 음악 1, 2, 3』 도서출판 태성
윤경미·문진, 『중학교 음악 1, 2, 3』 (주)아침나라
윤명원·김영희, 『중학교 음악 1, 2, 3』 (주)지학사
이홍수의 3명, 『중학교 음악 1, 2, 3』 (주)두산
조창제, 『중학교 음악 1, 2, 3』 교학연구사
최필림외 3명, 『중학교 음악 1, 2, 3』 성안당

<단행본>

교육부, 『중,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해설(IV)』, 대한교과서, 1999

이상규, 『국악감상교육체계화 연구』,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2002

국립국악원, 『초, 중등학교 국악내용 통일안 (II)』, 1996

김성경, 『한국음악입문』, 은하출판사, 2004

윤명원의 4명, 『한국음악론(우리음악의 멋과 정신)』, 음악세계, 2003

<논문>

권주심(2003), “효율적인 창작국악 감상지도를 위한 수업 모형의 구성에 관한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김민정(2003),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9종의 비교 분석 연구: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김후분(1994), “국악교육의 실태 연구에 따른 국악 감상학습의 제언: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양해숙(2005), “현행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감상곡 분석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윤영(2004),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감상에 관한 연구” 용인대 교육대학원

임모니카(2006), “중학교 국악 감상곡 분석과 지도 방안: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정명숙(2003), “제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국악감상 교육 연구 :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용인대 교육대학원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and study of the domain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ppreciation in nine kinds of music textbooks for a middle school

Sun-hee Chun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the domain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ppreciation in nine kinds of music textbooks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in a middle school, exploring whether their terms or terms on a score were properly used in comparison with a plan for unifying Korean traditional music which was presen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preparing a plan for

revitalizing the domains.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domain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traditional music appreciating pieces which were presented in the textbooks included eighty-eight pieces for the first graders, fifty-three for the second graders and sixty-nine for the third grader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most presented in the textbook for the first graders. Secondly, classifying them into traditional music and creative music indicated that very great weight was placed on traditional music. Thirdly, based on a plan for unifying Korean traditional music, traditional music can be divided into court music, classical scholar's music, folk music and religious music. Great weight is placed on folk music among them. Fourthly, music played at a court banquet in court music, vocal pieces in classical scholar's music and folk music, and shamanic music and court ritual music in religious music accounted for a high percentage, respectively. Fifthly, expl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lan and the textbooks revealed that many differences were unexpectedly made in use of terms. Sixthly, investigating musical piece by musical piece the material

pieces not presented in the plan showed that even the same material pieces did not have tonality, beat, rhythmic pattern and words unifie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unlike different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is highly preferred or liked by the public. Thus, if a teacher enables students to like it by listening minutely to it and feeling it newly, it will be popularized and developed somewhat more. Also, the textbooks should variously contain it and allow students to listen much to and feel it. For that reason, their role is so important. Also, they also mix some terms for one musical piece and instrument. The phenomenon can cause confusions and problems, which requires unifying terms for the education.

Thus, a teacher should help students to understand it and approach it somewhat more easily and closely by teaching music appreciation systematically and using the terms fit for the plan.

<부록>

초, 중등학교 국악교육내용 통일안(Ⅱ)

1. 용어 통일안

용어	현행	통일안
악기용어	궁구리채, 궁굴이채, 궁굴리채, 궁채, 궁굴채	궁굴채
	설장고, 설장구	설장구
	소금, 당적	소금
	양금, 서양금, 구라철사금	양금
	자바라, 바라, 제금, 발, 제팔	제금
	장구, 장고	장구
	태평소, 대평소, 호적, 쇠납, 날라리	새납(태평소)
	풍류가야금, 정악가야금, 풍류가야고, 범금	풍류가야금
악곡용어	가락더리, 가락덜이, 가락제지, 가락제이	가락덜이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강강술래
	강원도아리랑, 강원아리랑, 아주까리 동백	강원도 아리랑
	관악영산회상, 삼현영산회상, 표정만방지곡	관악영산회상
	닐리리야, 율리리야, 율리리야, 율리리야	닐리리야
	도라지, 도라지타령	도라지타령
	돈돌날리, 돈돌나리, 돈돌라리, 돈돌날이	돈돌라리
	둥그레당실, 둥그레당실, 오돌또기, 둥그데당실	오돌또기
	밀도드리, 밀도들이, 본환입, 수연장지곡	밀도드리
	박연폭포, 개성난봉가	박연폭포
	뱃노래, 뱃놀이	뱃노래
	범패, 범음, 인도서리, 어산	범패
	보허사, 황하청, 현악보허자	현악보허자
	보허자, 장춘불로지곡, 관악보허자	관악보허자
	삼현도드리, 삼현환입, 상현환입, 상현도드리	삼현도드리
	상령산, 상영산	상영산
	성주푸리, 성주풀이, 성조푸리, 성조풀이	성주풀이
	세령산, 세영산	세영산
	수궁가, 별주부전, 토끼타령	수궁가(토끼타령)
	수제천, 정읍, 빗가락정읍, 횡지정읍	수제천(壽齊天)
	신고산타령, 어랑타령	신고산타령
	염불도드리, 염불타령, 염불환입	염불도드리
	영산회상, 중광지곡, 거문고회상, 현악영산회상	현악영산회상

	옹헤야, 보리타작소리	옹헤야
	육자배기, 육자백이	육자배기
	이야흥타령, 이야옹타령, 이야용타령	이야흥타령
	자진한잎, 자진환입, 자진한입	자진한잎
	중령산, 중영산	중영산
	천안삼거리, 흥타령	천안삼거리
	청성곡, 청성자진한잎, 청성자진한잎, 청성자진한입,요천순일지곡	청성자진한잎
	초수대엽, 초삭대엽	초삭대엽
	편수대엽	편삭대엽
	풍물, 농악, 풍물굿, 풍장, 매구, 두레, 두레굿, 풍물놀이	풍물놀이(농악)
	흥부가, 흥보가	흥보가
일반용어	겹리드, 겹서, 겹혀	겹서
	경드름, 경제, 경토리, 경조, 경기소리	경제/경드름
	깍는목, 깍는소리, 깍는음, 깍어내리는 소리	깍는소리
	늦은 곳거리, 늦은 곳거리 장단, 느진곳거리장단	느진곳거리장단
	단모리, 단모리장단, 단몰이, 단몰이장단	단모리장단
	도드리장단, 도들이장단, 염불도드리 장단, 삼현도드리 장단	도드리장단
	자진모리, 자진모리 장단 자즌모리, 자진몰이, 자진몰이 장단, 잣은모리, 자즌모리 장단, 잣은모리 장단	자진모리 장단
	중모리, 중모리장단, 중몰이,중몰이 장단	중모리 장단
	중중모리, 중중모리 장단, 중중몰이 중중몰이 장단	중중모리 장단
	진양, 진양조 진양장단, 진양조 장단	진양조 장단
	살풀이, 살푸리	살풀이
	재비, 잡이, 째이	재비

2. 민요표준안

1)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정호신 작곡 (1941) 강원도 민요

서 울 리 길 등 비 아 아 - 리 랑 - 아 -
가 구 살 - 리 수 고 - - 비 리 예 - 세 - 들 -
아 리 아 리 프 리 프 리 - 아 - 리 랑 - 아 -
가 리 아 리 - 알 리 수 - - 노 - 다 가 세

2) 몽금포타령

몽금포타령

황태오 작곡

꽃거리 1, 40-72

몽금포타령 부름 - - - 부름이나 일어나
몽금포타령 부름 - - - 몽금포타령 일어나
몽금포타령 부름 - - - 몽금포타령 일어나

5) 한오백년

한오백년

(정현의 선곡)

장소기 2-72-108

이 무렵 그날 주 - 스승이 - 날 - 구 -

한오백 년 - 사자 - 만 - 만 - 일 - 화 - 후 -

관심은 수레 - 주 - 주 - 주 - 일 - 다 -

정동주 - 동남기 - 나 - 만분미 - 다 - 세 -

이 무렵 그날 주 - 스승이 - 날 - 구 -

한오백 년 - 사자 - 만 - 만 - 일 - 화 - 후 -

관심은 수레 - 주 - 주 - 주 - 일 - 다 -

주디무로님 - 만수무강을 - 만 - 아 - 모 - 가 -